신앙 언어 예술

JEJU CULTURE SYMBOL

제 주 문 화 상 징

99

신구간

제주굿

방사탑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어

걸궁

탐라순력도

내왓당무신도

추사와 세한도

제주민요

설문대할망

돌하르방

동자석

동·서자복

당

포제

심방

입춘굿

영감놀이

자청비

본풀이

한라산신

삼승할망

넋들임

이어도

신구간

선정 취지

제주도에는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신구간이라는 세시풍속이 있다. 이른바 대한(大寒) 후 5일부터 입춘(立春) 전 3일까지는 지상에서 감시하던 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새로운 신이 교체되어 내려오는 신의 공백기이다. 신의 공백기이니만큼 변소 수축, 묘소 수축, 가옥 수리, 이사(移徙) 등 무슨 일이든 해도 아무 탈도 없다는 기간이다. 이 신구간은 제주에만 있는 풍속이니만큼 제주의 특수한 세시풍속으로 선정할 이유가 충분하다.

정의와 개설

신구간이란 지상의 신인 신관(新官)과 구관(舊官)이 교체되는 기간이므로 지상을 감시하는 신이 없는 공백기가 되는 셈이다. 이 기간을 대한(大寒) 후 5일부터 입춘(立春) 전 3일이라 한다. 이 기간에는 변소를 수리해도 탈이 없고, 마구간을 고쳐도 상관이 없으며, 묘소를 수축해도 아무 일도 없고, 이사를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신구간이란 세시풍속은 조선 영조 13년(1737)에 지백원(池百源)이 지은 『천기대요(天機大要)』에서 유래했다. 여기에 보면 「세관교승(歲官交承)」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한 후 5일에서부터 입춘 전 2일까지는 신구세관이 교대하는 때다(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新舊歲官交令之際).' 라고 적혀 있다. 신구간 기간은 사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농한기여서 위에 적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

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을 신들의 공백기에 아무 탈 없이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거의 도시생활을 하게 되었다. 도시라는 곳이 본래 주택난이 심한 곳이므로 이 신구간이 이사하는 기간으로 바뀌어졌고, 여러 가지 폐단도 생겨났다. 한꺼번에 이사를 하려니 집세가 올라가고, 이사한 쓰레기가 산적하게 되어 청소부들이 밤을 세워야 하고, 전화, 컴퓨터 등을 한꺼번에 옮겨야 하니 관계기관이 특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풍속은 유지되고 있다. 집을 빌리는 사람으로 보면 불편하지만 집을 빌려주는 주인 입장에서는 신구간에서 다음 신구간까지 임대기간에 따른 사용료를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어 매우 편리하다.



사진 이광진

이사철만 되면 심술처럼 찾아드는 혹한(酷寒)



사진 고기호

신구간은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세시풍속이다

신구간이란 세시풍속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 기능을 잃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근래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의 제주의 기온이 섭씨 5도 정도이니 모든 병균이 기를 쓰지 못하고 또 농한기여서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논리를 펴는 이도 있다. 다른 지방에서는 겨울철에 추워서 이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것을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천기대요』에는 대한 후 5일에서부터 입춘 전 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에서는 입춘 전 3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후로 본 민속의 변화라고 설명할 도리밖에 없다.

상징의 의미

신구간은 제주에만 있는 세시풍속이니만큼 제주의 문화를 표현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문화현상이다.

활용화 방안

-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때에는 신구간을 '제주의 6대 폐습'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주도에서 강력히 폐지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전통 민속이라는 것은 도의 강력한 행정력으로도 쉽게 폐지할 수 없다는 교훈만 얻은 셈이다. 이 신구간의 사회적 기능을 심도 있게 연구함은 물론, 우리 조상들의 현명한 지혜라는 면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현용준, 『공자왈 · 맹자왈』, 민속원, 2007.

| 집필 현 용 준

제주굿

선정 취지

제주굿은 한류(韓流) 고대의 원형(原形) 하늘굿[天帝굿]으로 낮도 이레, 밤도 이레, 두이레 열나흘 동안 계속해야 끝날 만큼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형식과 내용이 풍부하여 제주 제1의 무형문화재라 할 만한 〈큰굿〉으로 전승되어 왔다. 예로부터 세습해 온 마을의 도사제(都司祭) 매인심방이 집행하는 굿을 통하여, 신과 더불어 즐기며[神人同樂] 한 해를 계획하고, 신이 내리는 분부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공동체의 굿법에 맞는 '차례차례 재 차례 굿'을 오늘날까지 전승해 오고 있어서 제주의 문화로 선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사진 현용준

심방이 '신칼'을 들어 신들을 청해 들이는 모습

정의와 개설

제주굿에는 우주관(하늘과 땅), 생사관(이승과 저승), 세계관(시간과 공간) 등이 잘 드러나 있다. 우주관은 갑갈르는(구분하는) 천지창조의



사진 이수자

처녀의 한을 푸는 동이굿의 한 장면

과정과 인간 역사의 시작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작굿(초감제)부터 시작된다. '왁왁한 어둠[混沌]'으로부터 청이슬 흑이슬이 흘러서 하늘과 땅은 분리되었으니, 우주개벽 천지창조의 원리를 말하는 '곱갈르는 물(境界를 가르는 물)'의 이미지는 생명의 원천인 물에 의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생사관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이승이며, 죽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저승이다. 모든 사람은 이승에 한 생(一生)을 살고, 죽어서 저승에 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무속신화를 보면, 이승은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저승은 마음씨 좋은 형 대별왕이 다스리게 되어 맑고 공정한 세상으로 서술된다. 그러므로 굿은 이승의 무질서를 저승의 맑고 공정한 법에 의해 바로잡는 것이다. 이를 '신 길을 닦는다'고 한다.

세계관은 굿을 하는 시간인 제일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이다. 저승의 시간과 이승의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이 제일이며, 이승과 저승이 공존하는 공간이 굿판이다.

제주굿의 대표는 '큰굿'인데, 심방 집에서 하는 '신굿'과 사가(私家)에서 하는 '큰굿'이 있다. 신굿은 제주도 큰굿 중의 큰굿이며, '차례차례 재 차례' 굿

으로, 제주도 굿의 모든 형식과 내용이 다 들어 있으며 완벽한 굿의 체계와 질서를 가진 굿의 종합이다.

큰굿을 제대로 하는 심방은 굿법을 아는 심방이다. 심방은 인간이 굿을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사연을 신에게 아뢰고, 굿법에 따라 굿을 하여 인간의 문제를 풀어주는 '신의 아이' 이며, '신의 형방(刑房)' 이다.

상징의 의미

제주굿을 통하여 제주사람들의 생활신앙을 엿볼 수 있다. 마을 공동체 신앙과 계절제(季節祭) 또는 세시풍속으로서 당굿의 상징적 의미, 심방층[巫覡集團]과 굿법으로 전승하는 저승법의 상징적 의미, 큰굿 속에 본풀이[神話儀禮] · 맞이굿[迎神儀禮] · 놀이굿[娛神儀禮] 으로 나타나는 개별의례와 여기에 나타난 다양한 상징적 의미들은 개발 가능한 문화상징들이다. 곧 제주굿은 활용가능한 문화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제주문화콘텐츠의 보물창고다.

또 제주굿의 잠재적 에너지, 축제로 개발 가능한 문화상징들이다. 바람의 축제, 불의 축제, 비의 축제, 돌의 축제, 술의 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의 원재료가 될 수 있다. 제주굿은 제주신화와 더불어 축제로 개발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의 원석(原石)인 셈이다.



사진 현용준

'메인심방' 이 신을 청해 드리고 있다

활용화 방안

- 제주굿을 통해 물길과 바람 길을 여는 남 · 북방 문화의 비교연구.
- 큰굿을 바탕으로 한 제주를 대표하는 '아시아 민속극 축제' 개발.
- 제주굿의 '탈놀이'와 다른 지방의 '탈춤' 문화권에 대한 공동 연구.
- 굿의 내용과 형식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사업.
- 큰굿의 틀과 형식을 이용한 대형 드라마 제작사업.
- 탐라문화제를 큰굿처럼 이레 동안 벌이는 '큰굿 관광축제'로 개발.
- 큰굿의 우주관 · 세계관 · 생사관을 탐라정신으로 가르치는 문화교육사업.
- 신화와 굿을 활용한 문화특구, 굿박물관, 굿학교, 굿공원 등의 개발사업.

참고 자료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제주도, 1999.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집』, 제주도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문무병, 『제주민속극』, 도서출판 각, 2003.
문무병, 『제주의 무속춤』, 2003.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영등굿』, 2005.
문무병, 『제주칠머리당영등굿』, 2007.
문무병, 『제주 굿판의 아름다움—굿의 기메 · 전지』, 제주특별자치도, 2007.
문무병 외, 『한국의 굿』, 2002.

| 집필 문 무 병

방사탑

선정 취지

방사탑은 풍수적으로 마을의 허(虛)한 방위에 세워 부정한 기운을 막았던 돌탑[石塔]이다. 제주의 민속, 풍수적 속신과 민간신앙의 상징물로 다른 지방의 솟대신앙이나 장승문화와 관련을 가지면서 동시에 제주의 특수한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 석물이다. 원래 '거욱대'라 부르는 방사탑은 마을의 한 방위에 어떤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 지형이 비고 허(虛)하다면, 허한 방위를 막아야 마을이 평안하게 된다는 속신에서 쌓아 올린 탑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제주문화의 예술적 · 미적 가치와 특징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상징적 석탑으로 알려지는 등 선정 가치가 높다.

정의와 개설

방사탑은 어느 한 방위에 어떤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거나, 어느 한 지형이 비고 허(虛)하다고 생각하면, 허한 방위를 막아야 마을이 평안하게 된다는 속신에서 쌓아 올린 탑이다. '거욱대', '거욱', '거왁', '극대'라는 이칭이 있다.

방사탑은 기능과 명칭에서 다른 지방의 장승이나 솟대가 지닌 신앙적 의미와 유사한 점이 많아 보인다. 다른 지방에서는 장승을 '장승', '벅수', '장군석', '법수'라 하며, 제주도에서는 '돌하르방', '돌장승', '법수', '우석목'이라 한다. 또 다른 지방에서는 솟대를 '솟대', '짐대', '진대', '오릿대', '솔대'라 부르고 제주도에서는 '거욱대', '거왁', '극대'라 한다. 제주도의 '거욱대'와



사진 현명자

한경면 용수리의 방사탑

탑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몰래물마을 방사탑(2기), 골왓마을 방사탑(5기), 용수마을 방사탑(2기), 신흥리 방사탑(2기), 무릉리 방사탑(4기), 인성리 방사탑(2기)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방사탑으로는 대정읍 상모리 거욱대, 안덕면 화순리 거욱대, 성산읍 시흥리 거욱대 〈영등하르방〉, 표선면 성읍2리 구렁팟 〈가마귀동산 돌탑〉, 우도 방사탑 · 영일동 2기 · 하고수동 2기 · 주흥동 2기 · 동천진동 1기, 제주시 영평하동(알무드내) 거욱대, 내도동 2기 등이 있다.

상징의 의미

방사탑은 허한 방향에 세우면, 액운과 살(煞)을 막아준다는 풍수지리적인 방사(防邪)의 기능과 함께 마을의 안녕과 수호, 전염병의 예방, 화재 예방, 해상의



사진 현명자

방사탑 위에 올려놓은 인물석상

안전과 아이를 낳아 아무 탈 없이 키워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제주의 방사탑은 동서 또는 남북의 방위, 남녀 음양의 대비, 북에서 불어오는 서북풍의 바람 길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과 조류 등 풍수적 조건과 조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문화적 풍향계 역할을 하는 신앙적 상징물이다.

오늘날 제주 방사탑은 의미가 확대되어 신앙적 상징물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 미적 상징물로 문화유적지, 유명호텔, 돌박물관, 최신 건축물의 상징물, 마을의 공터, 4 · 3유적지, 이름없는 소규모 농작지에까지 다양한 문화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활용화 방안

- 방사(防邪)의 의미를 확대 재해석하여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활용.
- 크고 작은 방사의 탑을 명승지나 기념관 등에 상징적 기념물로 건립.
-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적 돌탑 문화권 지정 운영.
- 4 · 3해원상생탑 세우기, 학살터에 해원상생의 방사탑 세우기 운동.
- 방사탑의 문화적 · 민속학적 · 풍수적 · 미적 조명과 조사연구.
- 제주문화의 상징적 구조물로 활용.

참고 자료

제주도, 『제주도지』, 제7권, 2006.

| 집필 문 무 병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선정 취지

칠머리당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이다. 본향당이란 그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당을 말한다. 칠머리당은 건입동의 산지항 동쪽 바닷가 '칠머리'라는 곳에 있었다. 건입동은 제주시내의 도심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큰 배들이 이 제주



사진 현명자

신을 즐겁게 하며 바다의 풍요와 해상 안전을 기원한다

항을 이용하게 되어 사실상 제주의 관문이 되었다. 따라서 제주시의 선박들은 제주항을 이용하게 되었고, 선박을 가진 자들은 이 칠머리당여등굿에 참례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당시 제주도를 근대화시킨다고 해서 도에서는 '제주의 6대 폐습'의 하나로 '무당 행위 금지'를 들고 무속을 타파하려고 행정력을 집중시킬 때에 이 칠머리당영등굿은 어부들 부인이 다니는 당이어서 강제적 탄압이 의미 없다고 판단해서 1980년 11월 17일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이 의례가 행해지고 있어서 선정했다.

정의와 개설

칠머리당은 제주시 건입동(健入洞=옛 이름 '건들개')의 본향당이고, 그 당의 신은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과 '요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이다. 다른 마을의 본향당은 대개 그 당신의 제일(祭日)이 신과세제, 영등제, 마불림제, 시만국대제 등 4대 제일로 되어 있으나, 이 당엔 음력 2월 초하루의 '영등환영제'와 2월 14일의 '영등송별제'로 되어 있다. 영등신은 내방신(來訪神)으로 어부의 어획물 풍요나 해녀[潛嫂]의 채취물 풍요를 시켜주는 신이다. 본래 풍신(風神)의 성격이 있으나 제주에선 위와 같은 성격의 신으로 변하고 있다. 영등송별제를 지내기 전에는 어부들이 어로를 떠나지 않았던 습속으로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칠머리당의 당굿은 영등환영제는 간단히 지내고, 영등송별제는 성대하게 지낸다. 그 제차(祭次)와 시행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굿날이 돌아오면 심방이 시루떡, 메, 돌래떡, 펜포, 해어, 계란, 과일류, 채소류, 쌀, 실, 술 등을 신위 앞에 올리고, 각 집안에서 축원용 제상을 그 앞에 가지런히 배열한다. 그래서 '삼천백맷대'라는 깃발을 세워 제장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런 후, 수심방이 정장을 하고 '초감제'부터 해나간다. 초감제는 언제, 어디서, 무슨 때문에 무슨 굿을 한다고 신들에게 고하고 여러 신을 청하여 좌정시키는 제차이다. 이렇게 신들을 청해 앉히면 '예명 올림'이라 해서 참석자들의 이름과 그 가족들의 복을 비는 신고를 한다. 다음은 '본향듦'이라 하여 도원수감찰지

방관과 요왕해신부인을 청해 모시는 행사를 한다. 이때에는 매우 장엄하게 수심방이 소미(小巫)들이 치는 장단에 맞추어 요란하게 춤을 추며 마치 본향신이 들어오듯이 하여 신을 맞아들여 좌정시킨다. 그 다음은 '요왕맞이'로 들어간다. 제장에 푸른 대 10개를 두 줄로 세워 그 사이 길을 용왕과 영등신이 오시는 길이라 하여 이 길을 깨끗이 치워 닦는 행위를 하여 청해 들여서 빌고 보내는 행사를 한다. 이어서 '씨드림' '씨점'이라 하여 미역씨, 전복씨, 고동씨 등 해녀 채취물의 씨를 영등신이 뿌려주는 셈으로 좁씨를 바다에 뿌려 풍요를 기원하고, 돌아와 돗자리에 좁씨를 뿌려 어느 쪽이 미역, 전복 등이 풍성할까를 점쳐 예언한다. 마지막으로 '배방선'이라 하여 영등신을 태워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행사를 하여 끝을 맺는다. 근래에는 '배방선'을 할 때에 영감놀이를 하여 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본래 칠머리당영등굿에 없었던 것이다.



사진 현명자

해질무렵의 썰물에 영등신을 실은 짚배를 띄운다

상징의 의미

제주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해촌, 중산촌 등이 구별이 있으나, 제주 사람들의 삶은 바닷가에서 시작했고 바닷가 마을이 도시로 발전할 만큼 바다가 중요한 생활터전이다. 바다에 의존하여 살려면 어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이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데, 바로 영등굿이 그러한 굿

이다. 물론 다른 지방에도 영등신앙이 있지만 굿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곳은 제주뿐이라 본다. 그러므로 제주의 문화적 상징물로 지정할 만한 의미는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활용화 방안

- 각종 축제나 행사에 제주적인 상징 굿으로 활용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학계나 언론기관에서 제주의 대표적인 굿으로 연구와 촬영을 위해 몰려들고 있으므로 이 영등굿을 정기적으로 공연하여 관광객에게 보여줄 가치가 충분하다.
- 제주사람들의 생활문화와 영등굿의 필연적인의 관계를 잘 활용해서 제주문화사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현용준,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 집필 현 용 준

제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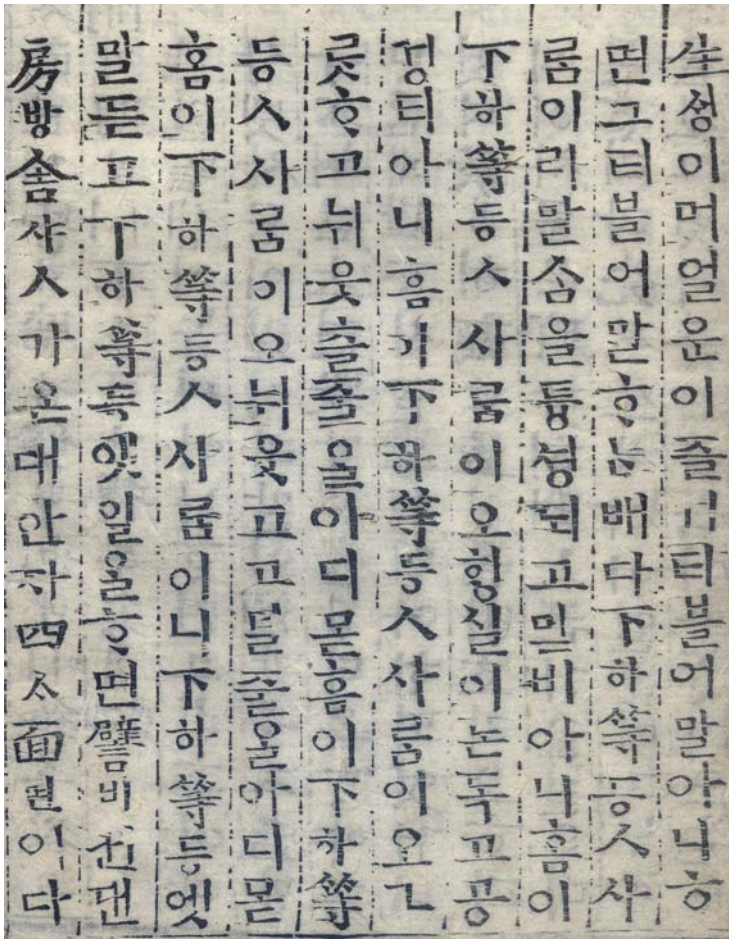
선정 취지

제주어는 한국어의 하위어로서 문법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독자성도 가지고 있다. 제주어에는 15세기 언어 모습이 남아 있어서 국어사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언어사적 보존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제주어는 특이하고 독특하다고 해서 한국어와 다른 모습이 아니고 그 범주를 벗어날 수도 없다. 다만 국어학적 가치가 높고, 제주의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다.

자연유산은 유형문화재여서 가시적인 화폐 가치가 드러나지만 제주어는 무형문화재여서 드러내놓고 사용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쉽다고 보며, 국가나 지방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 민속과 언어를 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어는 제주사람들의 정서를 잘 반영한 문화라 할 수 있다. 제주의 '음식문화, 주거문화, 복식문화'라 할 때 핵심에는 언어인 제주어가 놓여있기에 이를 선정하였다.

정의와 개설

제주도가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보존에 관심을 드러내었고, 제주사람들의 정체성 찾기 대상으로 제주어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2006년에 '제주 방문의 해'로 지정되었고, 2007년은 '제주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제주 민속 관련 연구서를 발간하고 기념전시회를 하는 등 부대 행사를 추진했다. 2006년 4월에 국립국어원과 국립민속박



소학언해(을해자 번각본, 선조 20년)

물관 공동으로 '제주지역어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발맞추어 제주도에서도 제주어의 보존과 활용에 관심을 표명했다. 2007년 9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되었다. 2008년은 유네스코가 '세계 언어의 해'로 지정해서 세계 곳곳의 언어 보존은 물론 소수언어의 사라짐을 염려하고 있다.

상징의 의미

제주의 문화를 잘 드러내는 어휘에는 '삼신할망, 자청비, 가믄장아기, 설문대할망, 신당(본향당), 제주굿, 갈옷, 몸국, 빙떡, 올레, 정낭, 밧거리, 안거리, 돌하르방, 동자석, 해녀, 궨당, 가문잔치, 불턱, 쉬는팡, 물팡' 등이 있다. 이를 소개할 때 제주문화와 역사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제주어에는 제주인의 정서가 담겨 있고, 언어는 그러한 문화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제주국제공항이나 관광지 등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주어 인사말을 보면 환영하거나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이 드러나고 이런 문장은 내국인에게 어느 정도 인지되었다고 본다. 즉 제주어 인사말도 제주의 브랜드라 할 수 있다[혼저옵서(어서 오세요). 반갑수다(반갑습니다). 왕 봥 갑서(와서 보고 가십시오). 촞아와 줭 고맙수다(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들이나 제주사람들도 이런 문장을 자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주어을 인지하게 될 것이며, 이런 작업들이 제주어의 위치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활용화 방안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대로 제주어의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충족한다면 제주어는 영원히 살아남는 언어가 될 것이다. 조례를 보면 매년 10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일주일간(탐라문화제 기간)을「제주어 주간」으로 지정해서 제주사람들 모두 제주어 사용에 동참하기를 유도하고 있다.
- 탐라문화제(매년 10월에 개최됨) 기간에 전통문화축제의 한 항목으로 '제주어축제'가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제주어말하기 경연대회, 제주어가요제, 제주민요부르기, 제주어시낭송, 제주어연극제」 등 제주어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여러 시도가 엿보인다.
- 제주사람들이 정감있게 청취하는「돌하르방 어드레 감수광?」(라디오 프로그램)은 대중매체가 제주어의 생명력을 유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제주어를 활용하고 보존할 수 있다.

- 제주어로 제주도 안내하기,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설명하기, 제주의 음식 소개하기 등을 간편하게 소지하고 다닐 수 있게 핸드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문순덕, 「제주어의 어학적 가치와 보존방안」, 『문화예술정책연구』5집,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문순덕, 「제주어의 자리매김」, 『제주특별자치도』111호, 제주도, 2007.

| 집필 문 순 덕

걸궁

선정 취지

제주사람들이 언제부터 걸궁을 시작했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옛 문헌을 보면 역사적으로 유래가 오래며 공동체 의례의 일종으로 세시풍속에 포함된 시기도 아주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걸궁은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빌고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마을공동체 연희로써 마을사람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왔다. 서구문화의 유입과 세태의 변화로 전통문화가 급속히 소멸의 길에 접어들었고,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소외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적 시점에서 걸궁이 갖는 의미는 소중하므로 문화상징으로 선정하여 계승하고 보전할 만하다.

정의와 개설

걸궁은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빌고 마을사람들의 단합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해져온 의례이자 세시풍속이다.

지신에게 고사를 올리고 풍물을 울리며 축복을 비는 정월 세시풍속인 '지신밟기'와 통하는 것으로, '궁핍한 형편에서 무엇을 얻고자 나서는 일'이란 뜻에서 걸궁(乞窮)이라 한다.

『탐라지』에는 "매년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남녀 무당이 주신을 모시는 기반(神纛)을 함께 받들고, 역귀를 쫓는 행사(儺戲)를 벌이면서 징과 북을 앞세워서 마을을 드나들면,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곡식을 내어 제사한



군제60주년남제주화보집 자료

마을의 단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걸궁

다."고 기록되어 있으며,『동국세시기』는 이를 "화반(花盤)"이라 전하고 있다.

걸궁패는 당굿을 하기 전 보름 동안 '당을 맨 심방'을 중심으로 독기를 들고 걸궁패와 함께 마을을 돈다. 집집마다 돌며 쇠 소리를 내어 잡귀를 막고, 삼도 전거리나 마을의 중심 등에서 부정과 액을 막는 굿놀이를 연행하여 보리쌀, 콩, 조 등을 받아 당굿에 소용될 기금을 충당했다. 사고가 나면 그 지역에 가서 특별히 주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기금을 갹출하여 기원과 방액을 하기도 했다.

일부 마을에는 '장고접'이라는 형태로 30~50여 명이 구성된 걸궁패가 있었다. 걸궁패에는 심방 2~3명이 접원으로 끼어 있어, 거리굿이나 만선의 풍어굿을 쳐 주었고, 걸궁패의 춤과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초록색의 수건을 쓰고 팔과 다리를 걷어 올려 묶은 모습이 그들의 대체적인 분장이다. 말관 모양



사진 서현열

현대 마을공동체의 축제로 계승된 걸궁

의 종이 모자를 쓰고 길쭉한 수염을 늘어뜨린 구대진사를 앞세우고, 그 뒤로 꽹과리, 징, 북과 장고 치는 이가 따른다. 맨 마지막에 포수가 서며 걸궁 행렬 뒤로는 구경꾼들이 따른다. 구경꾼에 휩싸인 채 걸궁패가 집집마다 방문하면 집주인은 술과 안주를 내어 대접하고 쌀이나 돈을 내놓는다.

걸궁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빌고 마을 사람들의 단합을 재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절걸립, 관공서걸립, 다리걸립, 회관 낙성식 등 필요할 때마다 걸궁판을 벌여 왔다. 마을의 공동 비용이 필요한데도 이미 각 가호에 분담하여 징수하기가 번거로울 때, 공동으로 쓰일 기구가 필요할 때 등 이를 마련하기 위해 걸궁을 벌여 왔다.

상징의 의미

걸궁은 제주도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세시풍속이자 마을공동체 놀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매년 같은 시기에 정기적으로 행함으로써 재앙을 물리치

고 복을 비는 마을공동체 의례이며, 당굿의 기금 모금과 만선제의 풍어굿 담당뿐만 아니라 마을의 관혼상제를 비롯하여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생활기제로써 집단 연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걸궁을 함으로써 마을사람 모두가 즐길 수 있고, 걸궁을 통하여 공동비용도 마련하는 실질적인 필요가 곁들인 선인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 할 만하다.

활용화 방안

- 마을공동체 축제라는 본령을 되찾도록 홍보하고 장려 :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방치하지 말고 활성화 한다. 걸궁을 할 때 각 가정에서 내어 놓은 기금은 공동체의 활동비를 분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집을 방문하도록 순서를 짜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시공간을 고려하면 좋다.
- 학교교육에서도 걸궁을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나 계발활동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배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참고 자료

이원진, 『탐라지』.
홍석모, 『동국세시기』.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세시풍속』, 200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세시풍속 Ⅱ』, 1998.
김영돈, 『제주성읍마을』, 대원사, 1989.

| 집필 양 영 자

탐라순력도

선정 취지

탐라순력도는 18세기 제주지방순력의 실상을 기록한 현존하는 유일한 기록화첩이다. 순력은 당시 민정과 군정을 책임진 지방관으로서 도백의 고유 업무였다. 이 기록화첩은 조선후기 지방관의 순력 실상은 물론 당시 제주의 방어시설과 관아시설, 생활상 등을 꼼꼼히 기록하여 제주지역사연구에 귀한 사료여서 선정했다.

정의와 개설

탐라순력도는 조선 숙종 때 제주목사 겸 제주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李衡祥:1653~1733)이 순력 내용을 그림으로 제작하여 남긴 기록화첩이다. 제주목 소속 화공(畵工) 김남길(金南吉)이 이 목사를 수행하면서 그림을 그렸고, 이 목사가 그림 설명을 덧붙여서 화첩의 이름을 『耽羅巡歷圖』라고 붙였다.

'순력(巡歷)'은 본시 지방관이 봄과 가을에 관내 각 고을과 군 주둔지를 순시하며 민정을 파악하고 군기를 점고하는 행사이다. 오늘날로 치면 제주도지사의 지역순회방문에 해당한다.

이 화첩은 서문 2장을 포함하여 모두 43장이다. 이 목사의 순력은 제주목(濟州牧)에서 출발하여 제주의 동부지역, 남부지역, 서부지역을 돌아 제주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순력기간은 숙종 28년(1702)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여 일 간이다.



제주시 자료

제주조점(좌), 감귤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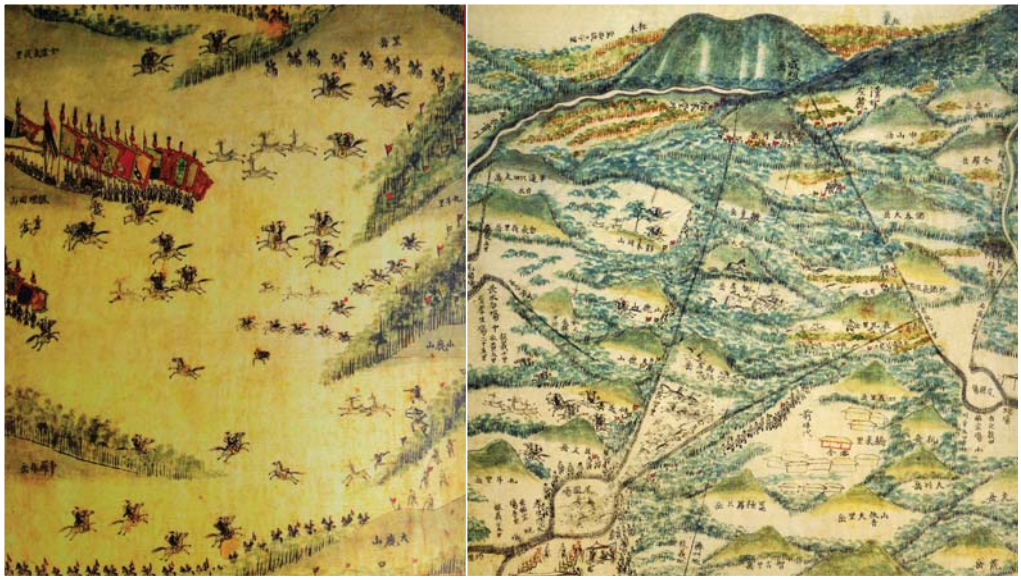
순력기간 행사기록도는 28장면이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조점(操點) 8(조천 · 별방 · 정의 · 서귀 · 대정 · 명월 · 애월 · 제주), 양로(養老) 3(정의 · 대정 · 제주), 성조(城操) 2(화북 · 수산), 시사(試射) 2(별방 · 명월), 강사(講射) 2(정의 · 대정), 사후(射帿) 2(천연 · 현폭), 점부(點簿) 2(모슬 · 차귀), 사회(射會) 1(제주), 전최(殿最) 1(제주) 등이다.

조점과 성조는 당시 정의현과 대정현, 9개의 진성(鎭城)의 군기를 점검하는 장면이다. 양로는 지방관이 마련한 경로잔치로 유교를 국시로 한 조선시대의 순력에는 관례화된 행사였다. 시사와 강사는 제주군사들의 활쏘기 대회와 활쏘기 시험 장면을 그린 것이다. 전최는 제주관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로 볼 때 순력의 목적이 방어시설에 대한 군기점검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화첩에는 당시 인구와 전결, 진상하는 감귤류, 각 읍성과 진성의 방어시설과 군사의 수효까지 꼼꼼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행정체계는 제주목 95개리, 정의현 22개리, 대정현 12개리 등 모두 129개리가 있었다.



제주시 자료

교래대렵(좌), 산장구마

상징의 의미

탐라순력도는 18세기 제주의 방어시설과 행정시찰 보고서 겸 생활상을 기록한 생활보고서이다.

당시 제주의 방어시설은 3성 9진, 봉수 25곳, 연대 38곳이 있었다. 각 진(鎭)마다 군사병력도 상세히 기록해 놓아 당시 제주의 군사수효를 파악할 수 있다.

「감귤봉진(柑橘封進)」, 「공마봉진(貢馬封進)」, 「교래대렵(橋來大獵)」, 「병담범주(屛潭泛舟)」 등을 보면 진상에 시달렸던 당시 도민의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감귤봉진」과 「봉마봉진」은 당시 조정에 진상했던 귤과 말의 진상장면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병담범주」는 제주시 용연에서 뱃놀이 장면을 그린 화첩인데, 전근대 시대 소중이를 입고 물질하는 해녀를 그린 유일한 사료이자, 해녀의 삶과 복식을 고증하는데 귀한 자료이다.

또 제주의 지리정보도 상세히 알 수 있다. 그 당시 산천, 도로, 해안, 포구, 마을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제주의 행정 · 지리적 변화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경계와 도로망, 포구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또 세 고을의 읍성(邑城) 모습과 관아(官衙)의 배치 상황, 각 진(鎭)의 위치와 구조, 봉수와 연대의 위치 등을 기록되어 있어서 제주의 관아시설과 진성을 정비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료이다. '제주목관아(濟州牧官衙)'를 정비할 때 기본 사료로 활용되었다.

활용화 방안

- 조선시대 지방관의 순력행차 재현 : 지역 축제 때 순력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순력의 실상을 알리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 문화관광상품으로 널리 활용: 제주목관아와 연계하여 수문장교대식 거행, 목사의 업무와 관련 공간 탐방. 제주목의 '감귤봉진', '공마봉진' 장면 재현.
- 캐릭터 상품 개발: 순력도의 군사깃발, 동물, 순력도 그림 등을 모사.

참고 자료

김오순,『탐라순력도 산책』, 제주문화, 2001.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耽羅巡歷圖』영인본, 1994.
제주시 · 탐라순력도연구회, 「耽羅巡歷圖研究論叢」, 세림원색인쇄사, 2000.

| 집필 김 오 순

내왓당무신도

선정 취지

내왓당(川外堂)의 무신도(巫神圖)는 제주시 용담동 내왓당에 있었으며 현재 10폭이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 무신도는 조선 세조 12년(1466) 이전의 작품으로 그 제작 연대가 오랠 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 무신도와 다른 독특한 화법으로 그려져 있다. 이들 무신도가 제주도 무속의 신상(神像)을 보여주는 그림임을 고려하여 2001년 11월 30일에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40호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이 무신도가 제주도 무속의 신관(神觀)의 특성을 잘 나타내어줄 뿐 아니라, 제주도 무속이 한국 무속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고유 신앙과 신관(神觀)을 가시적으로 남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상징물로 선정하는 이유가 충분하다.

정의와 개설

이 무신도는 내왓당에 모셔졌다. 내왓당은 제주시 용담동 한내(漢川) 가에 있었던 국당(國堂)의 하나이다. 국당이란 나라에서 인정하여 그 굿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당을 뜻한다. 내왓당이란 '내 바깥의 당' 이란 뜻으로, '천외당(川外堂)' 또는 '천외사(川外祠)' 라 씌어 있다. 이 '내' 는 바로 한내(漢川)를 가리키고, 그 당의 본풀이를 보면 "삼동물 가 내왓당에 좌정한 열두 신위전"이라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삼동물' 은 지금의 한천교 바로 위쪽에 있었던 못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열두 신위전"이란 말은 본래 내왓당에 12신위를 모시고 있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무신도의 홍아위

었고, 그 무신도도 12폭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지금 남아 있는 10폭의 무신도에는 각각 한자로 그 신의 이름을 써 놓고 있는데, 본풀이에도 그 신들의 이름이 전승되고 있다. 10폭의 신의 이름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안에는 본풀이에 전하는 신의 이름을 적는다.

帝釋位(제석천왕마누라), 本宮位(본궁전), 寃望位(어모라 원망님), 水靈位(수랑상태자마누라), 天子位(천ᄌᆞ도마누라), 監察位(새금상 감찰지방관 한집마누라), 相思位(상ᄉᆞ 대왕), 中殿位(중전대부인), 相軍位(정절상군농)〈'相軍位'의 '相'은 무신도에 지워져 버렸으나 '相思位'에도 '相'자를 쓴 것으로 보아 '相'자로 쓴 것임〉, 紅兒位(ᄌᆞ지홍이 아기씨).



사진 현명자

내왓당 터로 추정되는 한천 변

무신도 12폭 중 2폭이 없어진 것은 알 수 있는데, 이는 세조 때 제주분대어사(濟州分臺御史) 강우문(姜遇文)이 불태운 것임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 이유는 『朝鮮王朝實錄』 세조 12년 7월 병신(丙申)조에 잘 기록되어 있다. 결국 내왓당의 무신도 10폭의 제작 연대는 세조 12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하여 모셔오던 내왓당의 무신도는 고종 19년(1882)에 내왓당의 훼철과 더불어 모심이 끊어졌다.

이 무신도 10폭은 우리나라의 무신도들과는 그 화법이 전연 달라 뛰어나다. 한지(韓紙)에 우리의 전통적인 채색안료(彩色顔料)인 진채(眞彩)를 사용했고, 부분적으로 금박을 입혔다. 미술 평론가들의 논평에 따르면 이 무신도는 채색화(彩色畵)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선묘(線描)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평면적인 채색을 하고 있으며 한국 채색화의 전통을 가장 독특하게 남기고 있는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무신도가 제주 민중들의 원초적 신앙과 생활 정서, 그리고 미의식을 유감없이 담은 독특한 무신도라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다.

상징의 의미

이 무신도는 조선조 세조 12년(1466)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한국에서 가장 오랜 무신도이며 그 화법이 독특하여 미술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제주의 무속의 특성과 신관(神觀)을 나타내어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무속의 특성과 신관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주 내지 한국의 종교사 및 미술사적 측면에서 그 학술적, 미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활용화 방안

- 공연예술 활용 : 지금처럼 무신도를 박물관에 전시하여 우리의 종교사와 미술사를 관람자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일보 더 나아가서 이 무신도에 나타난 각 신의 복장과 장신구 등을 재현, 공연예술에 활용한다.
- 기념품 개발 : 무구를 핸드폰 줄 같은 것으로 디자인을 변형하여 관광객들에게 판매한다.
- 교육에 널리 활용 : 이들 무신도를 통해 우리의 종교사와 미술사를 이해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6.
현용준,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濟州島 巫俗硏究』, 집문당, 1986.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집필 현용준

추사와 세한도

선정 취지

제주도 유배로 모든 권세를 상실한 추사 김정희에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중국의 새로운 자료들을 구해서 제주도까지 보내준 제자 이상적의 고마운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그려준 「세한도」는 인간적인 감동을 대변함과 동시에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유배인의 예술작품이라는 점에서 선정의 의미가 있다.

정의와 개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를 오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세도정치 때문이다. 순조가 아직 어려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에는 경주김씨가 정국을 주도하였지만 순조가 친정을 함으로써 이후 권력은 순조의 장인이 잡게 되었고 정국은 안동김씨가 주도한다. 순조의 풍질이 심해지자 대리청정하게 된 효명세자는 안동김씨에 대항하고자 추사의 부친 김노경 등을 발탁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효명세자의 죽음으로 다시 친정하게 된 순조를 앞세운 안동김씨는 세자의 핵심세력들을 숙청하기 위해 탄핵정국을 이끌었는데, 이때 김노경은 가장 극렬하고 집요하게 탄핵을 당했고 가장 심한 형을 받는다. 이 일이 있고나서 10년 후, 추사 일가는 헌종 6년(1840),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헌종이 친정하게 되는 시점에서 안동김씨는 '윤상도 옥사'를 일으키고 추사를 배후로 얽어 결국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다.

추사 김정희는 절해고도 제주도에 유배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인 생명이 끝



다음모임지음 자료

소치 허련이 그린 「완당선생해천일립상」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이상적은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권세를 상실한 추사에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중국의 새로운 자료들을 구해서 제주도까지 보내주었다.

추사는 이러한 이상적의 변치 않는 마음과 고마운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헌종 10년(1844) 「세한도(歲寒圖)」를 그려준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 는 말에서 따온 세한(歲寒)이라는 표현은 이상적을 향한 추사의 감동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

이상적은 헌종 7년(1841) 10월부터 헌종 8년(1842) 3월까지 제5차 연행(燕行 ·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 연경으로 가는 일)을 다녀왔다. 1842년 10월부터 1843년 3월까지 제6차 연행을 다녀오면서 추사가 부탁했던 책들을 구입한다. 직접 구할 수 없는 것들은 구입을 부탁한 뒤 서울에서 책을 받아 1843~1844년에 걸쳐 제주도로 보내주었다.

이상적은 무려 12번이나 중국에 다녀올 정도로 당시 조선의 대표적인 역관이었다. 순조 30년(1830) 봄, 28세에 처음 중국에 다녀온 뒤 바로 추사를 찾아가 일찍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추사가 중국과 교류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주었다. 이상적 역시 추사의 명성과 후광을 통해서 추사의 북경 인맥을 활용하여 단순한 역관이 아닌 문사로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상적은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권세와 이익을 상실한 추사에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중국의 새로운 자료들을 구해서 제주도까지 보내주었다. 추사는 그 덕에 꼭 한번 보고 싶었던 『만학집(晩學集)』과 『대운산방문고(大雲山房文藁)』 그리고 『황조경세문편(皇朝經世文編)』을 이상적에게 부탁했으며 1843~1844년에 이 책자들은 제주도에서 전해 받고는 이상적의 변치 않는 마음과



사진 서현열

추사 적거지(복원)

고마운 정성에 진심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세한도」를 그려주었다.

상징의 의미

「세한도」는 일차적으로 시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마음을 『논어』에 나오는 한겨울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빌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세한도」의 진정한 의미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를 실존적으로 성찰하고자 했던 자전적인 내면 풍경을 담은 한 폭의 자화상 같은 그림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세한도」를 시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조형과 의미를 분석해 보면 바로 추사 자신이요, 추사가 처했던 유배적 상황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활용화 방안

- 추사의 제주유배생활에 기반한 Digital Storytelling 개발 : 추사의 제주유배생활에 기반한 드라마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게임 시나리오 등 개발.
- 추사와 세한도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명품 제주차로 「추사차」(보성지역 「초의차」 참조) 개발.
- 『완당인보』나 추사가 좋아했던 수선화를 디자인한 고급옷감 개발.

참고 자료

양순필,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1992.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99.
양진건, 『제주유배문학자료집 Ⅰ』,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집필 양 진 건

제주민요

선정 취지

전통사회의 사람들은 소리를 통해 일의 괴로움과 삶의 애환을 해소하고, 나아가 삶의 신명과 생활의 질서를 도모하여 살아 왔다. 그 과정에서 민요는 구연·전승하는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문화양식들을 그들의 언어와 가락으로 표현함으로써 강한 생명력을 얻고 전승되어 왔다. 제주민요는 제주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양식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무형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제주는 다른 지방과는 다른 독특한 민요권으로 알려져 '민요의 나라' 혹은 '민요의 보고'로 불릴 정도로 독자성과 독특함을 갖고 있다. 제주민요에는 제주사람들의 생활사가 녹아 있어서 선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정의와 개설

민요는 생업, 세시풍속, 놀이 등을 바탕으로 하여 민중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전승되어 온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제주민요는 제주사회의 사회문화적 산물로 제주에서 불리며 전승되어 온 민요를 말한다. 따라서 제주민요는 제주사람들의 삶의 인식과 정서, 풍속, 사회·역사적 배경, 문화 등을 제주사람들의 언어로 구현해 놓은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민요는 크게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주민요는 노동요가 압도적으로 많고 사설이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 〈밧가는소리〉, 〈밧불리는소리〉, 〈검질매는소리〉, 〈마당질소리〉 등 밭농사와 관련된 노래가 많이 불



사진 현제명

도리깨질은 서로 호흡이 맞아야 흥겹다

리었다. 또 제주에서만 독특하게 〈물질소리(해녀네젓는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이 외에도 〈낭끈치는소리〉, 〈ᄆᆞ쉬ᄆᆞ는소리〉, 〈방엣돌굴리는소리〉, 〈방에짛는소리〉, 〈ᄀᆞ레ᄀᆞ는소리〉, 〈불미소리〉, 〈망건ᄆᆞᆺ는소리〉, 〈탕건ᄆᆞᆺ는소리〉 등이 전승되고 있다. 다른 지방에 비해 노동요의 종류가 압도적으로 많고, 노동의 기능에 따라 노래가 잘 분화되어 있다. 이들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 사회역사적 배경, 제주사회의 경험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의식요는 장례 전날 빈 상여를 메고 놀리거나 장례날에 꽃상여를 운상하면서 부르는 〈꽃염불소리〉, 상여를 운상하면서 부르는 〈행상소리〉, 장지에서 봉분에 쌓을 흙을 파면서 부르는 〈진토굿소리〉, 봉분의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달구소리〉 등이 있는데 전국적 분포의 의식요와 기능이나 구연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유희요는 노동요에 비해 기교가 발달하고 선율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돌또기〉, 〈이야홍〉, 〈너넹나넹〉, 〈신목사타령〉, 〈봉지가〉, 〈산천초목〉, 〈동풍가〉, 〈중타령〉, 〈질군악〉 , 〈용천검〉, 〈계화타령〉, 〈사랑가〉 등 50여 종의 노래가 전승되고 있다.

상징의 의미

제주민요는 제주사회의 사회역사적 산물로써 제주의 독특한 풍토와 풍습이 반영되어 있다. 제주민요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모두 집단성이 강한 성격을 띤다. 어떤 경우든 독창이나 제창이 없고 서로 어울려 불러야 소리에 힘이 붙고



사진 현용준

남녀노소 없이 서로 어울려 보리클에서 보리를 훑어 장만한다

소리의 진가를 발휘하는 선후창이나 교환창의 방식이 주를 이룬다. 특히 독특한 사설구연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사설을 운용하면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미적 체험 양식을 보여 준다. 특히 다른 지방과는 달리 여성들이 남성들의 노동이나 의례에도 참여함으로써 여성민요의 양과 질이 빼어난 점이 독특하다.

제주민요는 제주라는 삶의 공간과 사회, 제주사람들의 인식체계, 정서 등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되며, 제주사람들의 독특한 미적 체험양식을 보여준다.

활용화 방안

- 문화콘텐츠화하고 상품화 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 CD, DVD제작.
- 제주민요박물관 설립 : 교육자원 또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 전국적인 어린이, 청소년 대상 제주민요대회 개최.
- 민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아카이브로 구축 : 문화운동에 연계.

참고 자료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도서출판조약돌, 1983.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도, 2000.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민속원, 2007.

| 집필 양 영 자

설문대할망

선정 취지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은 서양의 거신들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거녀들보다 창조성이 뚜렷한 여신이며 문화영웅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설문대할망 설화는 제주의 풍토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면서 향토화 함으로써 제주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해왔다. 설문대할망이 제주의 대자연을 창조하고 가꾸어나가는 정신이야말로 제주를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거대한 꿈이었다. 여성영웅으로서의 설문대할망의 창조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주의 문화 상징으로 선정했다.



정의와 개설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어디를 가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각자 자기 고향의 지형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윤색되어 향토색을 반영하며 전승되어 왔다. 설문대할망이 가장 보편적인 명칭이긴 하나, 옛 문헌에는 '사만두고(沙曼頭姑)', '선마고(詵麻姑)'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민간에서는 '선문데할망, 설문듸할망, 선맹듸할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전승되어 왔다.

설문대할망은 키가 큰 거녀(巨女)로서 치마폭에 흙을 퍼 담아 제주와 한라산을 만들고, 흙을 나르는 과정에 한 줌씩 떨어진 흙덩이들이 360여 개의 오름이 되었다고 하는 제주의 창조신이다.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우면 성산포에까지 발을 뻗어 물장난을 할 수 있었고, 팔은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관탈섬 앞바다에

발을 문질러 빨래를 했으며, 산에 솥을 걸어서 밥을 해먹을 정도였다.

키가 아주 커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어 제주사람들에게 속옷 한 벌만 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제주사람들은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명주 백 동이를 있는 힘을 다하여 모았으나 99 동이밖에 안 되었다. 실망한 할망은 놓아가던 다리를 중단해 버렸다. 할망은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물들이 자기 키보다 깊은 것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한라산 물장오리에 들어섰다가 물장오리가 밑이 터져 한정 없이 깊은 물임을 모르고 그만 빠져 죽어 버렸다고 한다.



사진 오희삼

한라산 속의 물장올은 설문대여신의 성지이다



사진 오홍태

설문대할망의 발가락이 구멍을 내었다는 전설이 있는 범섬

상징의 의미

설화는 그 설화를 향유해 온 사람들의 우주관, 인생관, 생사관을 비롯하여 사회, 문화, 종교, 사상 등에 대한 해석의 단초를 마련한다. 특히 태초의 천지개벽에 관한 거신설화(巨神說話)는 상대(上代) 역사의 혼합과 그 민족의 사고체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설문대할망 같은 거신(巨神) 이야기는 서양에도 있으나, 서양 설화에서 창조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남성이다. 또, 우리나라의 '안가락', '마고할멈' 같은 거녀설화(巨女說話)는 여성의 창조성을 보여주긴 하나 사대사상이 농후하고 다소 과장된 흥미성을 보인다.

설문대할망 설화는 신화적 원형을 지니고 있으며, 제주의 지리적 조건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식, 육지에 대한 동경, 공리성, 우주에 대한 관념 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설문대할망은 제주사회의 역사성과 풍토성을 반영하고 있는 창조신이며, 제주와 육지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인간을 도우려 했던 문화영웅이다. 곧, 제주사람

들의 문화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미적 완성물로써 제주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정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활용화 방안

- 설문대할망관 설립 : 최근 설문대할망은 영화, 연극, 춤,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전시 · 공연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주어말하기대회나 창작동요대회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각계에서 활발히 펼치고 있는 활동들을 통합적으로 활용, 상설 전시 ·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애니매이션 제작 : 천지개벽설화이며 창조신인 설문대할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제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여성영웅의 활약을 그려 제주여성의 기질을 홍보한다.
- 설문대할망의 날 제정 : 각계에서 창조적인 활약이 뛰어난 여성을 뽑아 시상한다.

참고 자료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문무병, 「설문대할망 콤플렉스」, 한라일보 2007년 5월15일자.
임동권, 「선문대할망 설화 考」, 『제주도』제17호, 제주도, 1964.
장주근, 「제주도 여신 考」, 『제주문화』, 문총제주지부, 1957.
허 춘, 「설화에 나타난 濟州女性 考」, 『탐라문화』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 집필 양 영 자

돌하르방

선정 취지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민속공예품으로 너무나 유명하다. 제작 연대나 미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異論)이 많지만, 내국인 · 외국인이 공히 걸작이라고 평하고 있다. 1971년 8월 26일 제주도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게 되자 그 미술적 가치에 주목하게 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져 제주도 민속예술품으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점유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선정 의미가 있다.



사진 현병자

제주목 돌하르방

정의와 개설

돌하르방은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의 성문 앞에 세워졌던 석상(石像)이다. 제주목(현 구제주시)의 동 ·


사진 현명자

정의현 돌하르방

서 · 남문 앞에는 각각 8기씩 세워져 있었고, 정의현성과 대정현성의 삼문 앞에는 각각 12기가 세워져 있었다. 1960년 조사할 당시에는 제주목의 동문 앞에는 8기가 원위치에 존치되어 있었으나, 대정과 정의현성 앞의 것은 모두 옮겨져 다른 곳에 산재하여 있었다. 제주목의 것은 일반적인 명칭이 '우석목', 정의현의 것은 '벅수머리', 대정현의 것은 '무성목'이라 불렸다. 다만, 제주목 동문성 밖의 우석목은 어린이들이 그 이름을 몰라 '돌하르방'이라 부르고 있었다. 간혹 한문에 유식한 사람들이 '옹중석(翁仲石)이라 부르기도 했으나 일반 민중이 통용한 흔적은 없다. 이렇게 각 현마다 이름이 다르므로 1971년에 제주도민속자료로 지정할 당시 어린 아이들이 부르던 이름인 '돌하르방'을 공식 명칭으로 정함으로써 오늘날 공식 명칭이 되었다.

돌하르방의 제작 연대에 대해선 담수계편 『탐라지(耽羅誌)』에 "김몽규(金夢奎) 목사가 조선조 영조 30년(1754)에 창건하여 삼문 밖에 세웠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주목성이 쌓여진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가장 오랜 것이고, 대정현성의 축조는 조선조 태종 18년(1418)이며, 정의현의 축조는 본래 성산읍 고성리에 있었다가 지금의 표선면 성읍리(당시 이름 진사리)로 옮겼으니 맨 나중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제주목의 돌하르방이 맨 먼저 만들어 세워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상징의 의미



사진 현병자

대정현 돌하르방

제주삼읍(三邑)의 어디 것이나 돌하르방은 제주에 흔한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는데, 머리에는 둥그런 감투를 쓰고, 좁은 이마에 눈은 퉁방울처럼 크게 부리부리하고, 코는 자루병처럼 되어 있고, 입은 꼭 다물고, 손은 앞으로 모여 얌전히 접고 있어 위엄성 있게 만들어져 있다.

다만, 제주목의 것은 그 기석이 있어 성문 앞에 양쪽으로 마주 세워져 있는데, 그 기석에 한 쪽 것은 ㅇ형의 음각이 있고, 한 쪽의 것은 ㄱ자를 뒤집은 형태의 홈이 음각되어 있다. 가끔 돌하르방의 어깨가 한 쪽이 올라가 있다. 돌하르방이 성 바깥쪽을 향하여 바깥을 응시하는 듯이 길 양쪽에 서 있는데, 한 쪽의 것은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고, 다른 한 쪽의 것은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다.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것은 오른 손이 위로, 왼손이 아래로 접어 있다.

그런데 정의현의 것은 그 기석은 있으나 이러한 홈이 패어져 있지 않고, 대정현의 것은 아예 기석이 없다. 그 크기를 말하면 제주목의 것은 신장이 평균 181.6cm, 정의현의 것이 141.4cm, 대정현의 것이 136.2cm인데, 제주목의 것이 가장 위용있고 예술성이 짙게 조각되어 있다.

제주목의 돌하르방의 기석에 음각된 홈에 관해서 필자는 이를 성문이 닫치고 열림을 알리는 표지 곧 '정낭'의 구실을 하던 것이라 추정한다. 어떤 이는 이 석상의 조각이 몽골의 영향이라 하기도 하고, 발리섬의 조각 영향이라 는 주장이 있다. 만일 몽골의 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면 몽골이 제주에 들어와서 삼별초를 토벌하고 통치를 시작한 것이 고려조 원종 14년(1273)이니 제주삼읍의 성을 쌓은 연대와 맞지 않는다.

발리섬의 석상의 영향이라 한다면 선사시대 문화의 전파라 할 수밖에 없으니, 담수계편『탐라지』의 기록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하는 허망한 학설이 되고 만다. 따라서 돌하르방의 제작은 다른 지방의 장승의 영향을 받고 제주 정주목신의 영상으로 조각한 것이라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돌하르방의 민속 예술품적 가치는 이미 말했다시피 성 안의 수호신적, 금표적 상징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제주의 조각품이다.

활용화 방안

- 이미 돌하르방의 관광적, 교육적 활용은 지나치리만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시 첨언할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제주도,『제주의 문화재』, 1998.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2007.
현용준,『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집필 현용준

동자석

선정 취지

동자석(童子石)은 '무덤[陰宅]을 지키는 아이[童子]의 석상' 이다. 무속적이며 도교적 영향이 뚜렷한 제주 장묘문화를 보여주는 종교적인 석상이며, 제주 돌챙이[石工]의 상징적인 조각품이다. 동자석은 한라산 산신신앙(山神信仰)의 영향이 두드러진 신앙적 석상이어서 선정했다.

정의와 개설

동자석은 무덤에 세운 석상으로 돌하르방과 함께 조선 중기에 완성된 제주의 돌문화이며, 민중예술의 발아와 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상징물이다. 조각·공예·탈과 같은 양반 계급사회 현실주의적 봉건성을 앞세우는 유교문화를 뒤집는 무속적 저승관, 도교적 이상주의에 바탕을 두고, 평등사회를 꿈꾸는 제주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석조물로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아서, 다른 지방에서는 그 독자적 영역을 확보할 수 없는 무기교의 민중 조각품이다. 동자석(童子石)은 조선조 유교적 양반사회 문무석이 무덤[陰宅]의 상징물로 나



사진 이창훈

동자석의 가슴에 모은 손은 경배하는 듯한 인상이다



사진 현병자

죽은자의 영혼을 지키는 동자석

타나기 이전부터 나타나는 제주의 장묘문화의 특징적 상징물이며, 한라산 산신 신앙의 영향이 두드러진 신앙적 석상이다. 동자석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예를 갖추는데 그 기능을 살펴보면 숭배적 기능, 봉양적 기능, 수호적 기능, 장식적 기능, 주술적 기능, 유희적 기능이 있다. 동자석의 형태와 세부적 양상을 살펴보면, 동자석의 전신 · 형태를 상 · 하단으로 비유하였을 때, 동자석은 실제적으로 상단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자석의 얼굴은 타원형을 한 계란형 얼굴과 공처럼 둥근 원형 얼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동자석의 몸의 구분은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슴에 모은 손' 은 경배하는 듯한 인상, 간혹 술잔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을 올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빈손을 한 형태도 보인다. '배에 모은 손' 은 대부분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

머리 부분의 두발상태로는 댕기머리와 민머리, 올린머리 형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손에 들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 병을 들고 있는 동자석의 반대편 동자




사진 이창훈

여러가지 모습의 동자석

석은 잔을 들고 서 있는 경우, 병과 병을 든 경우도 있다. 꽃은 연꽃을 연상시키며 부채형인 경우, 반쯤 편 부채 같은 형태이다. 방울을 들고 있는 경우, 표주박을 들고 있는 경우, 꽃봉오리 모양도 있다.

상징의 의미

동자석의 상징은 무교, 도교, 불교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 무속적 상징인데, 신상으로서 동자석은 제주무속의 한라산 신앙과 저승관의 영향에 의해 완성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 풍수신앙과 도교의 영향에 의해 완성된 또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다. 사람이 늙어 죽으면 환골탈퇴하여 한라산에 들어가 산신 또는 신선이 된다는 신선사상과 함께 신선이 되었다는 조상을 모신 '동자석' 석신상이 지닌 상징적 의미이다. 셋째 무덤의 동자석의 손에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에 나타난 상징물에서는 무교, 도교 이외에도 불교적인 내세관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덤의 동자석은 육지의 무덤에서 볼 수 있는 유교적 양반관료인 주인의 부나 권위나 벼슬을 상징하는 무덤의 문인석과는 분명히 다른 무교와 도교, 불교의 영향이 뚜렷한 중요한 문화상징 석물임에 틀림없다.

활용화 방안

- 동자석은 크고 작은 실물크기에 복제품도 예술품으로 활용 가능, 이를 변형 또는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사업의 개발.
- 중국이나 다른 지방과는 다른 탐라국의 장묘문화 소개.
- 제주사람들이 화산석을 다듬는 돌챙이 조각법 기술의 개발과 활용.
- 동자석에 나타난 소품을 통해 문화, 종교, 예술의 계통 파악.
- 제주문화 상품으로 '돌하르방' 과 '동자석' 등을 특산품으로 개발 장려.
- 제주 현무암의 다양한 활용 방안.

참고 자료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10,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0.
김유정, 『통사로 본 제주 미술의 역사』, 파피루스, 2007.
이창훈, 『제주동자석 Ⅱ』, 제주콤, 2008.
제주도, 『제주도지』제7권, 2006.

| 집필 문 무 병

동·서자복

선정 취지

제주의 불교는 원(元)의 지배 100년간에 시작되어 조선 숙종 28년(1702) 이형상(李衡祥) 목사에 의해 전멸되고 말았다. 소위 '복신미륵'이라 일컫는 동자복사의 미륵이나 서자복사의 미륵도 제주의 불교와 관계가 깊은 조각품이다. 이 양 미륵은 제주 불교가 남긴 단 두 개의 조각품이므로 과거 제주도 불교를 연구하는 데 커다란 가치가 있다.

정의와 개설

우리가 흔히 복신미륵(福神彌勒)이라고 일컫는 미륵은 동자복사의 미륵과 서자복사의 미륵을 가리킨다. 동자복사의 미륵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개인 집 울안에 있고, 서자복사의 미륵은 제주시 용담1동 동한두기의 용화사 내에 있으며 그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다. 동자복사의 미륵은 지금은 비록 개인 집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곳은 고려 때에 만수사(萬壽寺)라는 사찰 내에 있었고, 서자복사의 미륵은 고려 때 해륜사(海輪寺)라는 사찰 내에 있었다. 동자복사의 옛 사찰 만수사는 풍수지리설로 보면 제주목(현 제주목관아지 중심)의 청룡 끄트머리에 세워진 사찰이고, 서자복사의 옛 사찰 해륜사는 제주목의 백호 끄트머리에 세워진 사찰이다. 그래서 동자복사의 미륵에서 보면 서자복사의 미륵이 마주 보이게 되어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두 사찰은 제주목을 지키는 구실을 했고, 또 고려 때에 이미 풍수지리설이 제주에 들어와 사찰을 짓는 데도 신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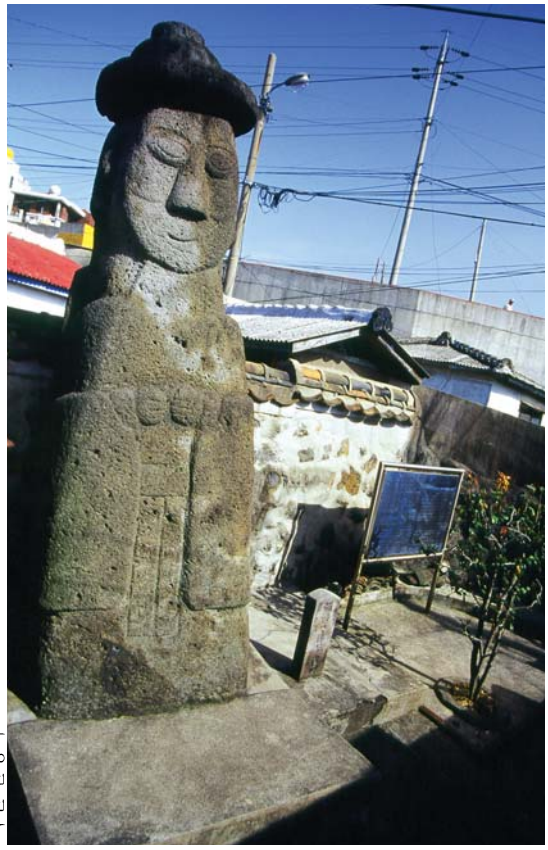


사진 현명자

제주시 건입동 소재 동자복

호국불교와 같이 제주목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자복사의 미륵 곁에는 남자의 발기된 성기(높이 약 75cm)와 비슷한 돌이 세워져 있어 기자(祈子)에 효험이 있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이것을 동자불(童子佛)이라고 일컫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아카마츠·아키바[赤松智城·秋葉隆]의 보고에 의하면 이 남근상 위에 여자가 올라타서 문지르면 아이를 배어 낳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이런 습속이 없어졌지만,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당시 제주 불교 실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자복사의 미륵은 차양이 빙 둘러진 너부죽한 감투를 쓰고, 커다란 귀, 우뚝한 코, 지긋이 담은 입, 인자스레 내려다보는 눈매 등 자비로운 불상으로 일품이다. 몸에는 예복을 걸쳤고, 두 손은 가슴에 정중히 접어 있는데, 소맷자락이 유난히 선명하다. 서자복사의 미륵은 하반신 일부가 생략된 채 기석으로 받쳐졌다. 동자복사의 미륵은 비에 젖게 방치되어 있는데, 서자복사의 미륵은 지붕이 누각처럼 지어져 비에 젖지 않도록 보호되고 있다. 동자복사의 미륵도 개인 집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도록 주위의 땅을 매입하여 옛 만수사의 자취가 남도록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두 미륵 모두 제주의 현무암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남근석인 동자불은 제주 돌이 아니다.

상징의 의미

동자복사와 서자복사의 미륵과 동자불은 제주에서 가장 오랜 미륵상이다. 미륵은 미래불로서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고자 하



사진 현명자

제주시 용담1동 소재 서자복

는 염원이 담긴 바 민간신앙의 대상이었다. 그 중 동자불은 기자(祈子)의 잔영이 남아 있는 만큼 제주의 고대 불교를 연구하는 데 크게 소용이 될 뿐 아니라 예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주 불교의 상징으로 매우 진중한 것이다.

활용화 방안

- 동자복사는 현재 개인 집 울타리 안에 있어 관광객들이나 일반인이 그 존재를 전혀 모른다. 서자복사의 미륵도 용화사라는 이름 없는 사찰 내에 있어 그 주변 사람들조차 모를 정도이다. 두 미륵을 관광, 또는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기념품으로 개발 : 소원성취의 상징으로 미니어쳐를 개발하여 핸드폰 줄, 가방 악세사리 등으로 판매.
- 신혼부부 여행상품으로 개발
- 어린이 청소년 탐방학습 자료로 활용

참고 자료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1998.

| 집필 현용준

당

선정 취지

제주도 본향당신은 마을 주민의 행·불행을 관장하고, 주민들은 당에 모여 개인의 안녕부터 마을 전체의 태평까지 기원한다. 먼 길을 떠날 때, 또는 출타했다가 돌아왔을 때 등 사소한 일까지 본향당신에게 찾아가 알리고,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게 해 달라고 빌었다. 당은 제주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성소이며 여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공간으로 제주문화의 특색이 확연하므로 제주문화의 상징으로 선정하였다.

정의와 개설

당은 지형적 조건에 따라 신목형, 신목·당우형, 당우형, 굴형, 굴·신목형, 석원형, 기타로 나뉜다. 이것은 마을마다 있는 성소로 마을을 수호해 주는 신의 상주처이다. 신은 남성신과 여성신으로 나누어 하르방당(할아버지당), 할망당(할머니당)으로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할망당으로 통칭한다. 직능별로 본향당, 일뤳당, 여드렛당, 해신당 등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본향당신의 본풀이는 그 마을이 어떻게 설촌되었으며, 당신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전되는 역사이다. 당신은 신앙민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이곳저곳으로 개척 또는 혼인 등으로 이동하는데, 이럴 경우 본향당의 흔적을 옮기고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모신다. 이런 당을 '가지 가른 당'이라 한다. 본향당은 마을의 토지와 주민의 제반 사항을 차지하여 수호해 주는 신을 모



와흘본향당의 신과세굿에는 다른 마을에 시집간 딸들도 와서 참여한다 / 사진 현명자

신 당으로 송당신계, 한라산신계, 외래신계, 기타로 나눈다.

일뤳당은 서당이라고도 하며, 매 7일이 제일로, 육아의 효험과 치병을 담당하며 피부병을 치료한다고 하여 '허물할망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신격은 여성으로 토산계, 서귀포시 호근리계, 중문동 하예리계로 나뉜다. 여드렛당은 제일이 매 8일이며 표선면 토산리 당에서 시작되어 널리 퍼졌다. 당신은 뱀이며 딸에서 딸로 계승된다.

해신당은 돈짓당, 개당, 영등당 등으로 불리며 어부, 어선, 어장, 해녀 등을 차지하여 관리한다. 당신은 돈지하르바님 돈지할마님, 개하르바님 개할마님 등으로 불리는데 신화가 길지 않고 신격이 뚜렷하지 못하다.



사진 현명자

세화리 갯것할망당은 썰물때만 갈 수 있는, 바다가 보호해주는 당이다

상징의 의미

마을마다 1~2개의 당이 있는 것은 보통이며, 신의 직능에 따라 본향당, 일?당, 여드렛당, 해신당 등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다. 당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있다. 다만 해신계당은 해변 선창가에 위치해야 하므로 인가와 가깝다. 해신당은 어부, 어선, 어장, 해녀 등을 차지하며, 이 계열의 당은 섬을 뱅돌아가며 마을마다 거의 다 있는데 요왕과 선왕신들과 혼동하여 신격이 뚜렷하지 못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제주문화의 모습을 방증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는 먼 곳까지 이동하여 전승되며 마을 설촌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문헌에 남아있는 한국의 건국신화를 해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와 메밀로 나타나는 기층문화에 벼 문화가 유입되어 외래문화와 토착문화가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당은 세시 행사만이 아니라 개인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는 곳이다. 그리고 당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화를 갖고 전승되고 있다. 기능적 측면으로는 한 마을의 제반사항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경찰서요 법

원인 셈이다. 더구나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 아니라 신이 내리는 판결이므로 도덕심을 함양하고 평화의 정신을 기르는 곳으로써 가치가 있다.

활용화 방안

- 공동체 단합의 장소로 활용 : 본향당을 마을행사나 축제의 장으로 활용.
- 분쟁 해결의 장소로 활용 : 본향당을 잘 보존하여 마을 내에서 일어난 싸움의 화해와 분쟁 해결의 장소로 적극 활용하여 상생의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장소로 가꾸어나간다. 카운슬링, 명상 장소로 활용한다.

참고 자료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집필 현 승 환

포제

선정 취지

제주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남녀가 공동으로 성소인 당에 모여 당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태평, 농사의 풍요 등을 기원해 왔다. 하지만 조선조 유교의 영향으로 당굿은 여성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고, 남성들은 따로 유교식 제의를 지내게 되었다. 이것이 포제로, 남성들은 마을 회의에서 제관을 선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금기를 준수하며 정성을 들인다. 정성기간 동안에는 출타한 마을사람들이 제물준비용으로 돈을 내거나, 제물을 준비하여 찾아오는 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곳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금도 마을사람들은 공동체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매년 초 이 의례를 전승하고 있다.

정의와 개설

마을 신앙은 크게 유교식과 무속식으로 나누며 유교식은 포제, 무속식은 당굿으로 행해진다. 이것은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삼한의 5월제, 10월제 등과 같은 제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포제는 마을 전체 혹은 대부분의 안녕과 복리를 위하여 남성들의 주관 하에 유교식 제법으로 지내는 의례를 말한다. 이것은 포제 외에도 마을제, 동넷제, 거릿제, 치성제 등으로도 불린다.

대상신은 포신지위(酺神之位) 또는 포신지령위(酺神之靈位)가 많고 그 외로 리사지신위(里祀之神位), 동사지신위(洞祀之神位), 토지지신위(土地之神位), 수토지신위(守土之神位), 가항지신위(街巷之神位) 등이 있다. 이 포신은 마을의

생명, 재산, 토지, 생업 등 제반사를 관장, 보호하는 신이며 농신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제의는 마을 회의에서 12제관을 선출하는데 모두 남성이다. 그들은 보통 3일 정성을 들이고 음력 정월 혹정혹해(或丁或亥)에 제사를 드리는데, 정월과 음력 7월 2회 지내기도 한다.



사진 김기삼

애월읍 납읍리 포제



사진 김기삼

납읍리 포제에는 돼지가 통째로 올려진다

상징의 의미

제주도의 포제는 전국적인 동제와 성격이 같고 기능은 포신에게 풍작이나 마을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한다. 주로 농사를 생업으로 삼는 곳에서는 우순풍조(雨順風調)와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고, 축산을 생업으로 삼는 곳에서는 가축 번성 등을 기원하고 있어 마을에 따라 기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포제는 매년 초에 성스러운 날을 정해 성스러운 장소에서 제관이 성스러운 의례를 행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질성을 느끼게 한다. 마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며, 정성기간 동안에는 축문을 쓰고 제의 절차를 확인시키는 등 선조들의 후세들에 대한 교육의 기능까지 지니고 있다.

활용화 방안

• 공동체 의식의 체험공간으로 활용 :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포제의

전 과정을 모의로 실행하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게 한다.

- 축제화 : 포제를 전후한 시간에 거리제 및 뒤풀이 같은 제차를 넣어 어린이와 여성들도 참여하여 명실공히 대동단결하는 기회를 만든다.
- 포제의 홍보 : 제주도는 농경문화와 어로문화가 공존하며, 그 문화에 따라 농경신이나 어로 관장신에게 의례를 행하므로, 마을의 특산물 판매 및 경승지를 포제의 성격과 더불어 적극 홍보한다.

참고 자료

현용준, 「제주도의 유식부락제」,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현용준, 「濟州島部落祭堂」, 이두현 외, 『부락제당』, 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39호, 문화재관리국, 1965.

| 집필 현승환

심방

선정 취지

제주도의 굿은 제주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표현이며, 탐라국 시대에서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전승할 수 있게 한 전승자는 심방이다. 그들이 구연하는 본풀이는 제주사람들의 문학이요, 그들이 집전하는 굿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전의 역할을 하였다. 제주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방은 신앙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신에게 빌고,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토록 하는 역할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심방은 제주사람들이 자연의 척박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안내자인 셈이다. 심방은 제주도의 크고 작은 굿을 집행하는 직능자이며 지금도 이들은 본향당과 단골들의 관리자이다.

정의와 개설

심방은 무격(巫覡)을 통칭하는 것으로 신의 성방(神의 刑房)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굿을 하는 심방과 비념을 하는 삼승할망으로 나뉘며 심방은 사제, 의사, 점술사, 연예인 등의 기능이 있다. 삼승할망은 산신에 대한 기원의례를 집행하지만 조산무의 역할이 중심이어서 엄격하게는 심방이라 할 수 없다.

심방은 남녀 성별에 따라 '소나이심방[男覡]', '예펜심방[女巫]' 이라 하며, 제비, 소미, 심방의 과정을 밟아 기능을 갖춘다. 이렇게 보면, 심방은 무당을 통칭하는 이름인 동시에 어떤 굿이라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며, 굿을 집행할 때는 그를 수심방이라 한다. 또는 기능의 다소에 따라 '큰심방', '족은심



사진 김기삼

서순실심방의 잠수굿 장면

방'이라 불린다.

심방이 되기 위해서는 성무의례를 해야 한다. 소미에서 심방으로 독립할 때는 10여 일이나 걸리는 큰굿인 신굿을 하면 하신충이라는 칭호를 얻고, 그 다음에는 중신충, 상신충의 단계를 거친다. 심방은 부모의 무업을 계승하여 세습하거나, 무구인 멩두를 줍거나, 무병을 앓아 입무하는 경우가 있고, 심방과 혼인하거나 생활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입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심방은 일반인이면서 심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제주도 심방의 특징은 세습무로 강신무가 적고 무병을 앓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심방이 신과 교섭할 때는 도랑춤을 춘 후 신을 불러들이고, 신에 빙의하여 신의 뜻을 전한다. 이러한 사례는 귀양풀이나 시왕맞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사진 현용준

안사인 심방의 아기점지를 기원하는 불도맞이굿 장면

상징의 의미

초월적 존재인 신과 신앙인의 의사를 소통시키는 의례인 굿에서 심방은 신의 유래담인 본풀이를 노래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연유로 굿을 하게 되었다고 신에게 고함으로써 굿을 하는 당시의 문화 배경과 사회 상황 등을 알린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면서 역사적 사실로 전승되어 문자가 없던 시대부터 '역사'가 되었으며, 심방은 신앙민에게 이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심방은 본풀이를 통해 역사의 전수자인 동시에 신앙민에게 문학적 소양을 길러 주었고, 그들의 생사 문제에 관여하여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도우미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게다가 춤과 노래를 통해 기원함으로써 언어를 통한 교류만이 아닌 신앙민의 예술적 감성까지 자극하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문화장르를 다양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심방은 영적 능력을 부여받은 초월적 존재로 신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주선하는 존재로 상징된다.

활용화 방안

- 심방의 구연물은 역사서인 동시에 문학이며, 그들의 춤은 신을 향한 신앙민의 기원과 신의 가르침의 복합물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문헌에 수용되지 않은 기층민의 역사가 녹아 있다. 이러한 종합예술품이기에 오늘날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굿에서는 한국 예술의 원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예인적 직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재능은 종합예술 수행자로서 활용 가능성을 보인다.
- 심방(무당)없이도 그가 갖고 있던 예술적 재능들이 전수될 수 있게 한다.
- 제주도의 각종 축제시에 심방들의 놀이판을 마련해서 그들의 의례가 교육적 소재가 되고 있음을 알린다.

참고 자료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집필 현 승 환

입춘굿

선정 취지

입춘굿은 "춘경(春耕) 친다"고 한다. 이 굿은 탐라국 시대부터 탐라왕이 백성들 앞에서 밭을 가는 친경적전(親耕耤田)의 유습(遺習)이 조선조에는 왕을 대신하여 호장이 나무소[木牛]를 끌며 농경의 모의적(模擬的) 행위를 실연하고 풍농을 비는 거리굿을 중심으로 한 관민합동의 축제였다. 또 신년의 풍농굿으로 1914년 전승이 단절된 뒤 1998년 '탐라국입춘굿놀이' 란 이름으로 다시 복원 전승되고 있는 전통적인 고대의 축제로써 '탐라국제' 의 의미를 지니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관민합동의 풍농굿이다.

정의와 개설

입춘굿, 탐라국 입춘굿놀이 굿은 지금은 전승되지 않지만 이원조(李源祚)의 『탐라록(耽羅錄)』에 기록되어 있다. 즉 탐라왕 때부터 친경적전(親耕耤田)하던 유풍이며, 官衙에서 주관한다. 입춘굿놀이의 중요 배역은 목사와 관원, 도황수, 호장, 무격배, 농부, 처, 첩, 동기(童妓)들, 새, 낭쉐(木牛) 등이다. 한 해 농사의 풍등을 점친다(보리 낟가리점). 호장과 심방들이 객사에 나타나 문안 인사를 한다. 모의적 파종의례를 통해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린다. 새가 날아와 훼방을 놀면 사농바치(사냥꾼)가 등장하여 새(邪)를 쫓는 대목에서부터 입춘탈놀이가 굿이다. 모의적인 농경의례를 행한다. 씨앗싸움(씨할아비가 밭할미를 조정하여 농부는 땅을 고른다)을 한다. 마당굿을 끝내고 관아의 문전제로 들어간다. 문굿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관덕정 앞의 입춘굿놀이

을 하여 각 창고의 부정을 막고 풍요를 기원한다. 한 해의 농사를 기원하는 비념을 하면서 굿을 마친다.

상징의 의미

입춘굿은 하늘에서 내려온 농경신 '세경할망'을 모시고 풍년을 기원하는 입춘굿을 하고, 칠성동 송씨 집안의 조상신이 되었다가 관아에 들어와 '옥할망(감



사진 강봉수

제주시에서는 해마다 입춘굿놀이를 재현하여 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옥을 수호하는 신)', '관청할망(동헌을 수호하는 신)', '창할망(창고를 수호하는 신)', '과원할망(과수원을 수호하는 신)' 등과 제주시 각 집안의 '안칠성(고방을 수호하는 신)', '밧칠성(뒤뜰을 수호하는 신)'이 된 뱀신 부군칠성을 위한 칠성제, 관아 각 건물의 액을 막고 문굿인 문전제(門前祭)를 겸하여 한해 농사의 풍요를 빌고 제주목 관아의 액을 막는 관민합동의 굿이다.

칠성제에는 반드시 뱀신(蛇神)을 위해 '토산당굿', 각 관청지기가 된 뱀신을 대접하고 청마다 액을 막기 위한 '액막이굿'으로 '전상놀이'를 하였다. 풍농굿은 농경신 '자청비'를 맞이하여 '세경본풀이'를 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사 기원을 하며, 농사의 전 과정을 연극적으로 보여주는 '세경놀이'를 하였다. 세경놀이가 끝나면, 다시 이 모의적인 농경의례를 탈굿놀이로 보여주는 '입춘탈굿놀이'를 하는데, 이 굿놀이에서 사용되는 탈은 영감놀이, 전상놀이 등에 쓰는 원초적인 종이탈의 발전적인 형태라 볼 수 있으며, 탈놀이의 내용은 세경놀이가 발전한 탈굿으로서 육지부 탈춤의 영향인지 아니면 육지부 탈놀이의 원형인 굿놀이인지 모르지만 탈춤에 등장하는 꿩과 포수, 호장(양반), 할망(처), 기생(첩)의 삼각관계 등이 나타난다.

입춘굿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희망과 설레임을 담은 굿으로 관과 민이 함께 한해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활용화 방안

- 제주시내의 여러 문화유적과 연계한 시민참여의 굿 개발, 관광 활용.
- 24절기 중 맨 처음 찾아오는 새봄의 해그늘[해시계-太陽曆] 축제개발.
- 낭쉐몰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리굿(걸궁).
- 읍성안의 모흥렬 탐라국제와 산지천 수신제.
- 성안 칠성골 칠성제와 칠성단의 북두칠성제[七元星君祭].
- 성밖 용담동 서자복신미륵과 건입동 동자복신 미륵제 개최.

참고 자료

문무병, 『탐라국 입춘굿놀이』, 제주도, 2002.
문무병, 『제주민속극』, 도서출판 각, 2003.
문무병, 『제주의 무속춤』, 제주도, 2003.
문무병, 『제주 굿판의 아름다움-굿의 기메 · 전지』, 제주특별자치도, 2008.

| 집필 문 무 병

영감놀이

선정 취지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속극이며, 심방굿놀이인 영감놀이는 큰굿이나 당굿, 멸치굿 등 크고 작은 굿에서 도깨비탈(=종이탈)을 쓰고, 영감으로 차린 도깨비들이 제장 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수선을 떤다. 또한 영감상에 차려놓은 제물들을 잘 대접받고 제장을 떠나는 풍자적인 놀이굿이다.

영감놀이는 불의 신[火神], 술 잘 먹고[酒神] 소리 잘하는[音樂神] 오소리 잡놈[演劇神]이며, 여자를 좋아하는[好色神] 영감(도깨비)신을 놀리는 제주의 대표적인 민속극인 심방굿놀이여서 선정의 의미가 있다.

정의와 개설

제주도의 심방굿놀이 가운데 〈영감놀이〉는 널리 알려져 있고, 쉽게 구경할 수 있으며, 누구나 그 놀이방식에 대하여 구구한 설명이 있었다.

영감놀이는 마당에 제상(祭床)을 차리고 밤에 행한다. 제상(祭床) 위에는 여러 가지 제물을 올리는데, 특히 돼지머리, 수수떡, 소주 따위 영감신이 즐겨 먹는 음식을 올린다. 이외에도 영감신의 가면과 짚으로 만든 자그마한 배를 준비한다. 가면은 창호지에 눈과 코와 입의 구멍을 뚫은 정도다. 얇은 헝겊으로 만들기도 한



사진 현명자

창호지로 만든 가면

다. 배는 짚을 실이나 노끈으로 엮어서 만들고, 가는 막대기를 배 중심에 꽂아서 돛대를 달고, 백지를 달아매어 돛을 삼는다.

영감놀이는 심리 치료의 의미를 지닌 병굿으로 미친 사람을 닦달하는 두린굿에 활용되기도 한다. 환자를 실컷 춤추게 하여 환자의 몸에 빙의(憑依)한 영감신을 떼어 보내는 굿이 영감놀이기도 하다.

두린굿의 막판은 환자에게 범접한 영감신을 쫓아 보내는 영감놀이를 하고, 짚으로 만든 배에다 많은 진상품을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내는 배방선으로 끝난다. 서우젯소리를 부르는 곳에는 '영감신'이 있다. 춤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신, '천하 오소리 잡놈' 도깨비 7형제 중 막내 동생이 환자와 더불어 춤을 춘다. 현실과 비현실의 극점에서 춤은 격렬해지고, 신인동락의 춤의 절정에서



사진 현병자

칠머리당영등굿 중 영감놀이



사진 현명자

배방선 지드림

신은 인간과 분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굿은 끝나고 모든 게 현실의 건강한 삶으로 환원된다.

상징의 의미

영감놀이에는 연극적 상징이 녹아 있다. 춤추는 영감신은 술을 좋아한다. 술은 '타는 물'이며 '광란의 불'이다. 술의 신은 호색·호식·호악(好樂)·호무(好舞)의 신이다. 축제와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영감신을 놀리는 영감놀이는 제주도 놀이굿의 전형이 되어 있다.

영감놀이에서 영감신의 분장은 종이탈을 쓴다. '종이탈'은 가면극 형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감신을 전형화하는 소도구이다. 단순히 백지로 얼굴을 가릴 정도의 소박한 가면이다. 백지로 얼굴을 가렸다는 의미는 악신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부정적 관념이거나, 악신은 무형의 존재라는 관념의 표

현이며, 인간에게 재앙이나 질병을 주는 불가시적인 공포의 대상을 안전에 노출시킨 희극적 형상화이다.

활용화 방안

- 제주 도깨비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문과 예술 양면의 지원.
- 덕수리 풀무간과 불의 신 도깨비를 연계한 마술공원 조성.
- 도깨비도로와 연계한 미로 공원 개발.
- 제주형 도깨비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도채비 공원 조성.
- 탐라의 술과 음료수 개발, 영감, 도채비, 참봉과 같은 도깨비 명칭 활용.
- 세계의 술의 신들과 비교되는 탐라의 술의 신 '영감'의 예술품 제작.
- 제주형 탈의 개발, 축제에 참여한 모두가 탈을 쓰고 노는 종이탈 축제.
- 한라산 장군선왕 불의 신 '도채비'와 연계한 제주의 들불 축제의 완성.
- 술과 소리, 연극의 신이며 축제의 신 영감을 놀리는 탈춤과 술의 축제.

참고 자료

문무병, 『제주민속극』, 도서출판 각, 2003.
문무병, 『제주의 무속춤』, 제주도, 2003.
문무병, 『제주칠머리당영등굿』, 2007.
문무병, 『제주 굿판의 아름다움—굿의 기메 · 전지』, 제주특별자치도, 2008.

| 집필 문 무 병

자청비

선정 취지

자청비는 제주의 무속신화인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이다.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총명하고 개성이 강하여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나 그 모든 역경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여성영웅이다. 제주 농경을 위하여 하늘에서 오곡의 씨앗을 가져오는 자청비는 풍요의 상징이며 남성에 기대기보다는 당당히 남성과 맞서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행동하는 여성이다. 삶의 질곡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자청비의 행동양식은 제주여성의 내면에 잠재된 기질이며 미래지향적인 여성상이므로 이에 선정하였다.

정의와 개설

신화 내용을 보면 자청비 부모는 자식을 얻기 위하여 백일간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제물이 백근이 차지 못해서 딸을 낳았다. 가령나다 가령비, 자청나다 자청비라고 이름을 지었다. 자청비가 15세가 되는 해에 주천강 연못가에서 하늘나라 문곡성의 아들 문도령과 조우했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첫 만남 장소는 동네 우물가, 물 한 모금이 인연이 되었다. 자청비는 남장하여 문도령과 함께 서울로 가서 3년간 과거시험공부를 했다. '오줌멀리 눕기', '화살쏘기' 등 서로 힘겨루기를 하지만 자청비의 지략으로 문도령은 게임에서 졌다.

문도령 부모의 호출로 이들은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제서야 문도령은 자청비가 여자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 후 연모의 정이 더욱 싹텄는데 하늘과



그림 강요배

농경의 신 자청비

땅이라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살아간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혼인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옥황상제의 며느리 되기 시험을 통과했다. 하늘나라에 전란이 발생하자 자청비의 지혜로 적군을 물리쳤으며 그 보답으로 오곡 씨앗을 받아 지상을 풍요롭게 하기를 희망하였다.

자청비와 문도령은 음력 7월 15일 오곡 씨앗을 갖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백중제를 지내게 되었다. 이때부터 문도령과 자청비는 농신(農神)인 세경이 되고, 하인인 정수남이는 축산신(畜産神)이 되어서 많은 목동을 거느리고 마소를 치며 마불림제를 받아먹게 되었다. 그래서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이라 부르게 되었다.

상징의 의미

자청비는 마음에 드는 남자인 문도령을 연모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살짝 감추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 자신의 사회적 성취를 위하여 공부하고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등 현대여성들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손색이 없다.

자청비 신화를 보면 자청비와 문도령이 첫 대면하는 매개체로 물 한모금과 버들잎이 등장한다. 자청비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면서 환생꽃을 따다가 생명을 부활시키는 생명신의 기능도 드러난다. 이 신화는 여성신인 자청비의 지략과 노력으로 인간세상을 지배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자청비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당돌한 여성이다. 공부를 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공부하면서 남성과 한 방에서 지내는 것도 슬기롭게 잘 해결한다. 남성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겨루기에서도 머리를 써서 슬기롭게 이겨버린다. 부모에게 쫓겨나지만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며느리가 될 정도로 지혜롭게 일을 풀어나간다.

자청비야말로 여성이라는 태생적 굴레를 벗어던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행동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줄 아는 당당한 제주의 여성상으로 상징된다.

활용화 방안

- 자청비라는 여신의 이름은 이미 상품화의 소재가 되었다. 자청비 브랜드는 소주, 화장품, 도메인 주소 등 제주의 여신이지만 전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다. 앞으로 문화관광콘텐츠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청비의 성격, 긍정적 요인들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 제주여성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자청비 여신을 지나치게 희화화하거나 품격을 떨어뜨린다면 신성하고 숭고한 여신의 이미지가 변모될 수 있다.
-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부터 결혼해서 정착하기까지 전 과정을 특정 장소와 연관지어서 에니메이션화하고, 관광순례코스로 개발한다.

참고 자료

김순이, 「문화영웅으로서의 여신들」, 『제주여성문화』, 제주도, 2001.
김순이, 『제주의 여신들 2』, 제주문화, 2002.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당, 1976.

| 집필 문 순 덕

본풀이

선정 취지

본풀이는 신의 출생부터 좌정하기까지의 생애이야기인 신화이며, 굿의 원리를 차례차례로 풀어 나가는 '굿의 대본[巫堂書]' 이다. 그러므로 제주굿은 본풀이를 노래하고, 본풀이로 신 길을 닦는 '맞이굿', 신을 모시고 노는 '놀이굿' 등 굿거리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본풀이는 굿법이며, 신법이고 저승법이기 때문에 사회통제 기능을 지닌다. 본풀이에는 "그때 낸 법으로 어떻게 하게 되었다"는 굿법 즉, 신화시대[그때] 낸 법으로 오늘날 어떤 굿[의례]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본풀이는 굿의 원리를 담은 '굿본' 으로써 중요한 제주문화상징이라 할 수 있어서 선정했다.

정의와 개설

본풀이는 '본(本)을 푸는 것' 이다. '본' 은 '뿌리', '근본', '원리' 란 뜻이고,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말하면, '신의 뿌리', '굿의 원리' 를 뜻하는 '본' 이다. 그리고 '풀이' 는 '푼다' 는 해석 · 설명 · 진술이라는 사전적 의미 이외에 '한풀이' 로서 역사적 해원(解寃)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신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이야기 한다' 는 의미에서 서사시이며 신화라 할 수 있다

본풀이는 우주적 질서이며 신의 질서이다. 심방이 장고를 치며 본풀이를 창하기 전 들어가는 말미에 "귀신의 본을 풀면 신나락 만나락하고, 생인의 본을



사진 현명자

송당신화 본풀이를 구송하고 있는 심방

풀면 백년 원수 되는 법"이라는 말이 있다. 본풀이는 신을 찬양하는 신나는 노래이며 굿을 할 때 부르는 굿본이다.

제주 사람들은 굿을 통하여 저승의 맑고 공정한 법으로 이승의 무질서–악 · 부정 · 병 · 죽음–를 바로 잡으며 공동체 사회를 이끌어 왔다.

제주도를 신들의 고향이라 한다. 제주도는 제주사람들이 1만 8천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공동체라 할 수 있다. 본풀이는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제주사람들이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생명처럼 간직하고 지켜야 할 맑고 공정한 저승법이다.

상징의 의미

본풀이는 신의 '본(本)'을 풀이하는 상징의 의미를 지닌 신화다. 꽃의 신화 이공본풀이는 생명꽃 · 번성꽃 · 환생꽃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자손을 번성시

키는 꽃이 있는가 하면, 웃음꽃처럼 울고 웃기는 꽃이 있고, 멸망꽃 · 악심꽃처럼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게 하는 꽃을 상징한다. 직업 신의 신화 삼공본풀이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자기 앞의 생을 헤쳐 나가는 제주여성[前生神(직업의 여신)]을 상징한다. 삼승할망(불도할망) 본풀이는 꽃가꾸기 경쟁을 통해 어머니의 태속에서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 해산의 능력을 지닌 '따뜻한 여자'가 생불왕[삼승할망]이 된다는 신화다. 농경신 자청비 신화 세경본풀이는 아름답고 황홀하다. 이와 같이 본풀이(神話)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상징을 제시한다.

특히 송당당본풀이 금백주할망 신화는 고대의 신시 송당리는 한라산을 내려온 신들이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하던 시기, 떠돌아다니던 사농바치(사냥꾼) 신들이 결혼을 하여 마을의 신으로 죄정한 곳, 신화의 메카, 당의 불휘공이라 일컫는 마을로 이곳에서 전승되는 당굿은 탐라 고대의 축제, 한라산신제의 혼례의식, "산으로 오르실 때 대각록(큰뿔달린 사슴) 천 마리를 잡고, 산에서 내려올 때 소각록(작은뿔 사슴) 천 마리를 잡아" 신에게 바쳤던 희생제의 의미를 또 하나의 문화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진 현병자

와흘본향당 표지석

활용화 방안

- 신화축제의 하나로 〈삼싱할망축제〉, 〈가믄장아기 축제〉, 〈자청비 축제〉의 개발.
- 제주신화의 동화구연대회.
- 열두본풀이 에니메이션 제작 보급.
- 신화의 디지털, 만화영화 산업 개발.
- 신화를 소재로 엽서, 화집, 학용품의 개발.
- 신화공원, 신화거리 등 단지 조성사업.
- 제주신화 중심거리 벽화그리기 사업.
- 제주의 신화 동상, 조각 제작.
- 신화인물의 상징성을 각종 로고로 제작 활용.
- 신화를 통한 제주사람들의 콤플렉스 연구.
- 신화연구를 통해 전통문화와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에 활용.

참고 자료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제주도, 1999.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집』, 제주도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문무병 외, 『한국의 굿』, 2002.

| 집필 문 무 병

한라산신

선정 취지

한라산신(漢拏山神)은 '하로산또' 또는 '새미하로산'과 같이 '-하로산'이라 부르는 '한라산에서 솟아났다'는 토착신으로 제주사람들은 이들을 '조상'이라 부른다. 제주도의 산신은 수렵·목축신이면서 때로는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으로 나타나 농경신적인 기능을 지닌다. 이는 단군신화의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와도 흡사하다. 한라산은 제주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한라산을 신으로 인격화 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제주도의 산신신앙은 한라산이나 한라산의 바람, 경외하는 자연을 인격화한 자연신앙으로서 한라산 신앙이며, 한라산을 태 손 땅의 지연조상(地緣祖上)으로 숭앙는 당신 하로산또 신앙[山神信仰]을 상징한다.

정의와 개설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심에 있고, 제주어로 '하로영산'이라 한다. '영산'은 '신령이 있는 산'이란 뜻이다. 제주도에서는 산신을 보통 '하로산또'라 한다. 이는 '신령이 있는 한라산'을 신격화한 명칭으로 '한라산님' 또는 '한라산 신령님'의 뜻이다. 따라서 '한라산=당신=조상'이 성립한다. 한라산은 제주사람들의 사냥터이고, 방목지이며, 죽어서 묻히는 묘역이기도 하다.

제주를 대표하는 〈산신당 본풀이〉는 한라산을 사냥하며 좌정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마을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에 정착하는 과정, 마을이 형성된 이



백록담의 산신제단 / 사진 오희삼

후, 신앙민들에게 신으로 대접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는 산신신화(山神神話)다.

〈산신당 본풀이〉를 굿본으로 한 〈산신놀이(사농놀이)〉는 당신[祖上]이 사냥하던 광경을 굿판에서 재현한다. 그러므로 〈산신놀이〉는 사냥감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유감주술이며 연극이다. 이것은 신화를 현장에서 재현하는 것이며, 신화로써 설명할 수 없는 신앙민의 생활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산신당 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내용을 보면, 신의 이름이 한라산을 인격화하고 있는 점, 신의 행위가 한라산의 기후 현상–바람 · 안개 · 비–을 설명하는 점, 신을 사냥하며 떠돌아다니던 설촌 조상으로 그리는 점, 신의 좌정처를 정할 때, 나침판을 이용하여 천기 · 방위 · 풍수, 특히 생수가 있는 곳 등 마을의 입지에 알맞은 곳을 정하는 점, 신의 식성이 사냥꾼의 육식식성을 갖는



사진 오희삼

산천단의 제단

점, 신의 출생을 '한라산에서 솟아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 주요 신화의 상징적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상징의 의미

한라산은 영산이다. 한라산 계곡에서는 바람 · 비 · 안개 · 구름이 만들어진다. '하로산또'가 한라산을 인격화한 신이듯이 바람 · 비 · 구름 · 안개도 인격화되어 신으로 불린다. 한라산을 상징하여 '하로산또', 한라산의 바람을 상징하여 '붓름웃도'라 불리며, 이 신은 누가 보아도 한라산이며 한라산의 바람이다.

하로산또는 본향당신으로 큰굿을 집전하는 '감상관(監床官)'이 되어 모든 신을 마을로 모셔 오는 사제(司祭)의 기능이 있다. 한라산신이 하늘과 땅의 중간 위상의 산신이므로, 수렵 · 목축신이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 사이의 기후를 관장하는 '바람', '비'의 신이기도 하다. 하로산또는 '사농바치[사냥꾼]'를 상

징하기도 한다. '사농바치'란 한라산신계 수렵·목축신은 "삼천병마 일만 초깃발"을 날리며, 달리는 장수신[軍士]으로 표현된다.

제주도의 산신은 '사냥을 하며 살았던 설촌조상'을 상징하는 조상신이지만, 이 신은 그가 살아온 삶의 편력만큼이나 무서운 흉험을 주는 신이기도 하다.

활용화 방안

- 한라산 장군선왕 한라산신제–사냥제.
- 송당리 신시 당오름 백주할망당 신화 축제의 개발.
- 고대(古代)의 당제로 한라산신제의 복원.
- 방목과 테우리코사, 산신맹감제.
- 후천세상의 복신미륵 통일장승 '하로산또' 석신상 세우기.
- 당500 절500 답사 기행 상품 개발.
- 산촌 마을 음식축제 개발–흑돼지와 메밀 축제.
- 갈옷 등 민속 공예품 개발.
- 백주할망 예언 듣기 산받음(제비점과 명도점) 축제.
- 〈산신놀이〉 산촌의 심방굿놀이 축제.

참고 자료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제주도, 1999.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집』,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문무병 외, 『한국의 굿』, 2002.

| 집필 문 무 병

삼승할망

선정 취지

삼승할망(産神-)은 출산과 육아를 관장하는 위대한 여신(女神)으로 확고한 위상을 지녔다. 현대의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하던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승할망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아기를 잉태하게 해주고 아기가 태어나도록 도와주며, 그 아기가 15세가 될 때까지 잘 보살펴주는 의무를 지닌 신(神)이라고 믿었다. 과거에는 인간은 미미한 존재이고 미약한 힘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서 자연, 조물주 등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절대적인 신에게 의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인간만이 우수하다고 믿으며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우주여행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과 출생의 신비함은 과학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오묘함이 들어 있기에 이를 조명하고자 삼승할망을 선정하였다.

정의와 개설

제주어 '삼승할망, 삼싱할망, 삼싱할망, 아기할망'은 표준어 '삼신할머니'에 해당한다. 이 여신은 아이를 점지해주거나, 아기가 태어날 때 또는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안에 따라서 '삼승할망'(삼신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기원을 드리는 '할망상'(할머니상)을 준비하기도 한다.

삼승할망의 무속신화를 보면 옥황상제가 지상을 내려다 보다 명진국 따님아



사진 현용준

구삼승할망이 차롱을 지고 떠나고 있다

기가 효성스럽고 성품이 온화하며 한 손엔 번성꽃, 또 한 손엔 환생꽃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생불왕[産神]으로 추천했다. 몇 가지 시험한 후에 산모가 해산할 때 몸이 열리면 열두 궁의 문[陰門]을 해산시켜 주라고 했다. 다른 한편 동해용왕의 딸은 불효한 죄로 인간세상으로 내쫓겨서 명진국 따님아기와 만나게 되었다. 서로 자신들이 생불왕이라 다투다가 옥황상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꽃을 잘 가꾸었다. 명진국 따님아기의 꽃이 번성해서 삼승할망이 되었다. 이때 동해용왕 딸은 명진국 따님아기의 꽃을 한 가지 꺾으면서 아기가 태어나 백일이 지나면 온갖 질병에 걸리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명진국 따님아기는 저승할망을 달래려고 아기가 태어나면 저승할망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상을 마련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후 동해용왕 딸은 저승으로 가서 저승할망[구삼승할망]이 되고, 명진국 따님아기는 이승으로 내려와서 출생과 성장을 관장하는 삼승할망이 되었다. 삼승할망상 차림은 마을이나 집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정성하는 집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날 할망상을 준비하거나 대개 7~8세가 되면 치우지만 늦어도 15세까지는 놔둔다.

상징의 의미

삼승할망(삼신할머니)은 사람의 출생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신을 노여워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거역하면 아이를 얻기도 힘들지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즉 질병도 가져온다고 믿었다. 할망한테 빌어주고 난 후에 병원에 가야 빨리 치료가 된다고 믿는다. 삼승할망이라고 해서 모두 선의의 생각을 품는 건 아니다. 인간처럼 나쁜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도 있듯이 좋은할망은 아기를 달래면서 편안하게 해주고, 나쁜할망[구삼승할망/구할망]은 아기를 막 괴롭혀서 얻어먹으려고 한다. 만일 나쁜할



사진 현용준

불도맞이굿 중 ᄃᆞ리추김

망이 한 아이를 죽게 만들면 그게 버릇이 되어서 그 다음 동생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위해서 제를 지내기도 한다.

활용화 방안

- 부모가 아기의 건강한 육아를 삼승할망에게 기원하는 할망상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는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어린 생명을 절대자인 신에게 의탁했던 풍습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가 잘 보급된 현대에도 영유아기에 서서히 나타나는 질병은 전승되는 주술의례에 의탁할 수 있다. 이를 인간의 불완전성, 생명의 존엄성, 어머니들의 육아·질병 퇴치법 등을 확인해 주는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 삼승할망의 초상화를 그리고, 할망상을 준비한다. 산모의 방이나 벽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그마한 상에 제물을 차린다. 산모가 기원하는 모습을 그린다.
-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하다. 〈청춘남녀의 만남→혼인→임신기원→임신→순산염원→할망상 마련(준비과정, 주술염원 과정, 의례집행자 등)→질병물리침→건강한 아이로 성장〉 등 통과의례의 단면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참고 자료

문순덕, 『제주여성속담으로 바라본 통과의례』, 제주대학교출판부, 2004.
문순덕, 「통과의례 속의 제주여성풍속 전승 양상」, 『제주여성전승문화』, 제주도, 2004.

| 집필 문 순 덕

넋들임

선정 취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놀랐을 때 넋(혼)이 나갔다고 믿어서 넋을 위로하고 불러들이는 무속의례이다. 이 상징은 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상처입은 넋을 위로하고 풀어주지 않고 놀란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큰 병에 걸린다고 믿었다.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정신적 충격 치료 방법이다. 제주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전승되는 무속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 선정하였다.

정의와 개설

제주의 무속의례인 넋들임은 치병의례(治病儀禮)의 일종이다. 이 의례는 심방(무당)이 의례집행자가 되어서 행하는 굿 형식의 넋들임이 있고, 비념 형식의 넋들임이 있다. 비념은 정한수를 떠 놓고 당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입담으로 귀신을 내쫓는 의례를 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병명을 모를 때 이 의례 집행자를 청해서 의례를 수행한다.

넋들임은 특정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놀람의 원인을 알게 되면 사고가 난 장소에 가서 빌어준다. 주로 새벽이나 밤에 가서 "○○○야, 오라 가게." 하면서 당사자의 이름을 서너 번 부르면서 혼을 불러준다.



아이에게 넋을 들이고 있는 넋할망 / 사진 현용준

상징의 의미

넋들임은 정신적 충격으로 넋이 나가서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일 때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므로 가족이 치료대상자를 데리고 그 장소에 물 한 병을 들고 가서 "아이고 넋 났구나. 혼났구나. ○○○(당사자 이름을 부름) 이슬비 맞암구나." 하면서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옷을 가져가서 머리에 씌워서 머리, 가슴, 귀로 '코코' 하면서 세 번 불고, 물을 비운 후에 그 물을 세번 먹인다.

이 의례를 행할 때는 주로 사고가 난 장소에 가서 빌어주고 집에 가서도 빌어준다고 한다. 집에서 할 때는 주로 문전에서 빌어준다. '넋들임상'은 소지 석장을 묶고, 찬물, 쌀 한 사발, 술 한 잔을 올린다. 아기의 넋들임은 할망당에 가서 드리기도 한다.

자동차에 넋이 난 사람의 '넋들임상'에는 구운 생선, 밥 한 공기, 사과 2~3개, 돼지고기(잘게 썰어서 익힘)를 올린 후에 잡식을 해서 그 장소에 뿌린다. 잘 빌어주지 않으면 자주 넋이 난다고 한다. 잡식한 것을 당사자 머리 위로 왼쪽으로 세 번 오른쪽으로 세 번 흔들고, 침을 뱉으라고 한다. 그런 후에 그릇을 들고 '하직입니다' 하면서 던져버린다고 한다. 자동차에는 조상신이 있어서 이를 치료할 때는 돼지고기를 올려서 빌어주어야 하며, 잘 빌어주지 않으면 자주 넋이 나간다고 한다. 이런 넋들임은 특히 그 장소에 가서 들여야 영험하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이 치병의례 후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다고 믿는다.

넋들임은 우리 몸이 단순한 육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혼이라는 것이 깃들어 있다는, 정신세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례이다. 충격으로 인하여 몸에서 분리된 정신을 불러들여 합일시킴으로써 비로소 건전한 심신을 이룬다는 치료법인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서구문명에서도 이와 같은 정신의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조명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문화에서 넋들임은 혼백, 영혼, 정신, 마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고통에 대한 치유를 상징한다.

활용화 방안

- 넋들임은 민간신앙으로 문화콘텐츠의 원형이지만 상품화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이 상징물은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제주사람들의 위로 방법, 심리치료방법을 탐색해 보고 현대인들이 고민하고 수용할 점을 찾게 해 주는 것이다. 즉 민간신앙도 종교이므로 합리적, 과학적 시선을 버리고 전승문화요소로 받아들인다면 의미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문순덕 외, 『한국의 가정신앙 : 제주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집필 문 순 덕

이어도

선정 취지

이어도는 제주여인들이 삶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울 때마다 떠올리고 불러보는 희망의 땅이었다. 바다로 고기잡이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고통스런 삶의 현실을 넘고자 할 때마다 민요로 애절하게 불려졌으며 전설도 생겨났다. 중국 해남 가는 길의 중간에 있다는 이 섬은 제주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이상향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어 제주의 문화상징으로 선정하였다.

정의와 개설

제주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오랜 옛날부터 조난과 표류에 삶을 맡겼으며, 생과 사를 넘나들며 꿈꾸어온 이상향인 이어도의 소재는 구비전승에서 잘 표출된다. 민요에서는 강한 의지로 이어도를 찾았고, 전설에서는 비극성이 강화되어 낙원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또한 저승으로 돌아간 남편이 살고 있는 섬 혹은 여인국으로도 등장한다. 1900년 영국 상선 스코트라(Scotra)호가 침몰하여 1910년 영국해군에 의해 소콧트라록(Scotra Rock)으로 명명 기록되었다. 1984년 제주도 KBS팀이 공동탐사에 성공해 파랑도(波浪島)로 이름 붙이고 2001년 국립지리원은 이어도라고 명칭을 부여했다. 곧 파랑도를 이어도로 명명하여 이어도 과학기지센타가 설치되었다.

상징의 의미

이어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속의 섬이며 전설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어도에 관련된 여러 섬들에 관한 기사가 있어 그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할 당시(충렬왕 3년), 이어도 전설이 문헌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어도에 관한 민요나 전설은 이미 제주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1602)에는 이어도 전설과 유사한 '요여도(搖女島)'가 나온다. 또한 제주에서 배를 타자마자 태풍을 만난 최부(崔溥,『漂海錄』의 저자)가 닻줄이 끊어져 표류하다가 도착한 섬은 초란도였는데 이어도와 같은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파도 가운데 여(嶼; 조수간만에 따라 드러나는 섬)가 하나 있는데 여인들이 머리를 땋은 것과 같아서 '유녀도(遊女島)'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신화와 전설에서도 표류와 여성(女性)의 성을 관련 · 유념해서 '여도'가 나온다. 제주의 한 어부가 항해 중 한 섬에 표착하여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되려던



그림 김재경

이어도는 거칠고 험난한 항해를 거쳐서 도달하는 낙원이며 이상향이다

차에 여인국인 이어도에서 한 여인에게 구조된다. 그 여인과 정이 깊이 들어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함께 제주도로 들어와 가족이 돼서 살다가 그 여인은 조천 마을을 지키는 본향당신(장귓동산 일뤠한집)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제주민요 중 「해녀노래」에는 후렴으로 '이여도사나'가 나오고, 맷돌을 돌리거나 방아를 찧으면서 부르는 「맷돌방아노래」에는 '이여이여 이여도ᄒᆞ라'라는 후렴이 반복하여 따라 다닌다. 일본인 다카하시도루(高橋亨)가 이러한 민요 후렴구의 의미를 '이허도(離虛島)' 전설과 연결시키고 설명하고 있는 점도 흥미를 끈다.



사진 고기호

이어도 전진 기지

민요의 내용을 보면 이어도는 아득한 수평선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고기잡이 떠난 남편이 살고 있는 섬이다. 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따뜻한 섬이요, 굶주림이 없는 곳이요, 언젠가는 가고 싶은 곳이다. 이어도의 위치에 대해서도 중국의 해남 가는 길의 중간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어도는 오랜 전설의 땅이요,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던 때에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양에서 어업을 하다가 태풍이 다가오거나 표류시에는 이곳을 대피의 거점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해안가 마을에서는 바다에서 실종된 남편에 대하여 "이어도에 가 있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요에 나타나는 이어도는 비극성을 띠면서도 낙원과 희망의 이미지로 강조되어 노래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사람들에게 바다 저 멀리 있어 거칠고 험난한 항해를 거쳐서 도달하는 낙원이며 이상향이다. 즉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참아 견디며 살아낸 후에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아름답고 편안한 세상, 이 세상 슬픔의 등짐을 벗어 놓는 날 비로소 맞이하게 되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섬이다. 이어도는 현실에서는 너무나 그립고 멀리 있는, 그래서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가는 희망의 땅을 상징한다.

활용화 방안

- 이어도 전시관 설립: ①이어도의 수중세계와 과학기지 홍보관을 건립 홍보 · 교육함으로써 제주사람들의 정신적인 이상향 복원. ②전 국민, 특히 미래세대로 하여금 해양자원의 중요성 인식. ③우리나라 영토의 소중함, 특히 자원의 보고로써의 해양영토에 대한 인식의 계몽

참고 자료

좌혜경, 「제주민의 정신적 고향-이어도」,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녀박물관, 2007.

| 집필 좌 혜 경

자문위원

강영봉 제주대학교 교수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장
김석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
문무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송시태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조현종 국립광주박물관 관장
주강현 제주대학교 초빙교수
현용준 전 제주대학교 교수
홍순만 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장

발굴위원

고창석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소장
김순이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김오순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연구사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이영권 영주고등학교 교사
정광중 제주대학교 교수
좌혜경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
현춘식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

집필자

강만익 대정여자고등학교 교사
강영봉 제주대학교 교수
강창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전문위원
고부자 단국대학교 교수
고창석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소장
김동전 제주대학교 교수
김석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
김순이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김오순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연구사
김일우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연구사
김종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전문위원
김찬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연구원
김혜숙 제주대학교 교수
문무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박찬식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신석하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양영자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전문위원
양종렬 제주교육박물관 학예담당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수
오상학 제주대학교 교수
오영주 제주한라대학 교수
오희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이문교 제주관광대학 교수
좌혜경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
주강현 제주대학교 초빙교수
최돈원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전문위원
현승환 제주대학교 교수
현용준 전 제주대학교 교수
현진숙 제주복식문화연구소 소장

사진

강만보 강봉수 강창화 고기호 고성근 김기삼 문철부 박경배
서현열 오희삼 윤봉택 이광진 이수자 이창훈 현명자 현용준
현제명 홍순병 홍정표
국립제주박물관 디아모레뮤지움 문화재청 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군제60주년남제주화보집 '이어도사나'

그림

강요배 김재경

총괄 : 강영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기획 : 고창석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소장
편집 : 김오순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연구사

행정실무

정태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홍원석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담당
송상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04제주문화상징신앙 2008.10.01 1:3 PM 페이지503

제주문화상징

발 행 2008년 9월
발 행 인 제주특별자치도
우)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2
발 행 처 제주문화예술재단
인 쇄 처 하나출판
Tel.(064) 725-6950~2, Fax.(064)723-4580.

IS BN 978-89-961555-0-8-93090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070-01
〈비매품〉

04제주문화상징신앙 2008.10.01 1:3 PM 페이지504